

龍正文化

1987. 12. 31

第 13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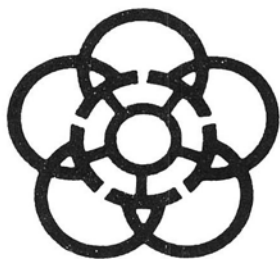


龍仁文化院

龍仁文化

1987. 12. 31

第 13 號



龍仁文化院

군 민 현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현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차례

더 릿 말	용인문화원장	김정근	5
龍仁漫筆	明知大學校 人文大學 教授	申千湜	7
용구문단 <수필> 함박골의 봄		金美淑	14
<시> 아내		박상돈	16
무풍지대		이길호	17
一事一考	金(금)과 金(김)	石岡	18
꽃 꽃 이	봄	영지회 꽃꽂이 오민근	21
書 藝	顏眞卿의 爭座位帖	金周翼	22
구혼례의 節次		編輯室	23
特 輯	우리 나라 美術의 特徵(Ⅲ)	金載悅	27
옛 문헌속의 용인(Ⅱ)	龍丘별장으로 떠나는 李釋之에게	홍순석	32
용인금석유문자료(8)(9) 사은정기(四隱亭記)		홍순석	...
	중수사은정기(重修四隱亭記)	홍순석	...
용인문화원 주최 제2회 청소년 백일장 최우수작			
사랑의 코스모스	백암국민학교 6-1	문아영	40
작은 애국에서	신갈중학교 2-1	정희자	42
힘든 생활의 보람	송전농업고등학교 2-원예과	한현미	44
용인군 주최 학생저축 글짓기 최우수작			
우리집의 저금통	용인국민학교 6-5	홍설하	48
근검절약	용인여자고등학교 2-6	김세미	50
사 발 통 문			53
表紙說明			63
편집후기			64

머 리 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광학기제에는 초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초점이 맞아야 광학기가 자닌 모든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천체망원경, 현미경은 물론 사진기에 있어서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사진다운 사진을 얻을 수 없음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2월 16일에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갈 최고 책임자이며 지도자를 뽑는 국민 각자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구비한 국민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민주국가에서 주인은 물론 국민이다. 주인이 주인다운 역할과 행동을 취하려면 이에 적합한 소양과 교육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사회교육이 실험적으로 있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나 개인이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집단의 다소의 불이익 내지는 손해가 있더라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감수하면서 국가의 장래나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거에 임했어야 국민의 참다운 자세가 아니었겠나 생각해 본다. 무턱대고 국가의 장래야 어찌되든, 국익은 어찌되든 나 자신의 이익, 나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이는 진실로 잘못된 주권의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친목을 목적으로 친목회를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각 개인은 서로 양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소의 희생도 해야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구순한 친목회가 되는 것은 누구라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자기는 조그마한 희생도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친목회에서도 편안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 자그마한 친목회도 그럴진대 국가대사에 있어

서야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선거가 끝나고 어느 월간지 만화에 노태우대통령후보 당선의 제일 유공자는 김영삼, 김대중 선생 두 분의 공로였다고 했다. 투표에 임하는 후보자는 최소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위해서 출마해야 하는 것이고, 명예나 권력에 앞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올바른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보았을 때 일부 국민과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분들 중에도 애국적인 견지에서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글퍼지기만 한다. ■

龍 仁 漫 筆

明知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教授 申 千 湜

우리가 살고있는 용인지방(龍人地方)은 참으로 살기 좋은 입지적 자연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지방은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의 생활터전으로 개척되었고, 이후 역사의 전승과 더불어 문화의 요람으로 계승·발전되어 왔던 곳이기도 하다.

고조선시대(古朝鮮時代)에는 남하한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백제(百濟)·고구려(高句麗)·신라(新羅)가 이곳을 그들의 영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혈전을 벌였던 곳이다. 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수도권의 외곽지대로서 군사·경제·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다하였던 지방이다. 용인지방이 이와 같이 한국사(韓國史)의 중핵적위치로 등장할 수 있었던 요건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 운지라는 자연요건을 들 지 않을 수 없다. 즉 이곳은 보개산·선장산·남곡 함박산·광교산·부아산·정수산·신화산·어은산·성류산·구봉산 등의 산세(山勢)와 금령천·구룡천·경안천 등이 관통하고 있는 하천이 있어 생활여건으로 가장 적당한 곳중 하나다.

병풍같이 사방을 둘러싼 산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생활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자연요새의 역할을 하였고, 동서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하천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원류가 되어 자급자족의 생산성을 보장한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용인은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명당의 터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곧 용인은 일찍부터 명당터로 알려져 ‘사거용인(死居龍仁)’이라는 말로 불리워 지기도 하였다. 사거용인(死居龍人)이

라 함은 사자(死者)만이 안주할 수 있는 명당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곳의 자연적 입지가 생활의 이상적 요람이었기 때문에 생자(生者)들이 이곳을 동경하여 죽은 후에라도 이곳에 안주하고자 염원하였던데서 나온 말이다. 또 죽은 후에 이곳에 묻히게 되는 경우, 외부의 난국에도 피해를 입지않고 영원히 안주할 수 있다는 요건도 구비되어 있어 모든 사람들은 이곳을 생자(生者)와 사자(死者)의 이상향으로 인식하였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풍수지리설은 계승되어 국가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표적 사례로서 세종대왕(世宗大王)이 돌아가신 후 일차적인 능묘(陵墓)의 대상으로 등장한 곳이 이곳 용인이었고, 세조(世祖)·성종(成宗)이 돌아가신 후에도 능묘(陵墓)의 후보지로 부각되어 몇차례 걸쳐 조정대신들이 이곳을 탐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예종(睿宗) 즉위년에는 당시 유명한 화공(畫工) 한귀(韓貴)가 용인지방을 순력하다가 양지(陽智)와 죽산(竹山)의 경관을 보며 감탄하여 “죽산양지양현주산형세도(竹山陽智兩縣主山形勢圖)”를 그려 왕에게 헌진(獻進)하며, 아울러 이곳에다 능침(陵寢)을 안치하면 자손이 대대로 향복(享福)할 것이라 하여 용인에 능침을 안치할 것을 진헌(進獻)하기도 하였다.

II

이러한 입지적 자연여건을 갖춘 용인지방은 인심 또한 순박하여 대대로 충신·효자·열부가 끊어지지 않고 배출하고 있다.

신라말(新羅末) 이길권(李吉卷)은 고려 태조를 도와 삼국통일의 주역을 담당하여 “구성백삼한벽상공신삼중대광승록대부태사(駒城伯三韓壁上功臣三重大夫崇祿大夫太師)의 직(職)을 받았고, 고려말 영천(永川)출신으로 목은 이색(牧隱李穡)과 동문수학하던 석학 이석지(李釋之)는 국운이 기울자 용인의 남곡(南谷)에 은거하여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일생을 마쳤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용인출신의 안홍국(安弘國)·이완(李莞); 양지출신의 김충수(金忠守) 등이 임진왜란때의 순국충절로 정려(旌闈)의 포상을 받았고, 병자호란을 즈음하여는 용인출신 이경선(李慶善)·정탁(鄭

倬) 등이 또한 순국충절로서 정려의 포상을 받았으며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인 오달제(吳達濟)도 원삼면에서 성장한 분이다. 이밖에도 세종(世宗) 때 왜구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운 장천군 이종무(長川君 李從茂), 세조(世祖) 때 북방정벌에 공을 세운 남이(南怡), 임진왜란 때의 명장이일(李鎰) 등은 용인에서 성장하였던 분이며 또 병자호란 때의 충신 이시직(李時稷) 또한 용인에서 성장하였던 분으로 용인을 가이 충절(忠節)의 고향이라 하겠다.

이러한 충신열사는 조선말기까지 계승되고 있는데 원삼면 문촌리에서 태어난 오백당 이주국(梧栢堂 李柱國)은 종친(宗親)인 덕천군 후생(德川君 厚生)의 후손으로 정조(正祖) 때에 활약하였던 명장이었으며, 구한말 국운이 기울때 국권회복을 위한 계몽운동에 일생을 바친 석농 유근(石濃 柳瑾)도 용인 김량장 출신이며 초대 주영서리공사로서 국권회복을 위하여 외교활동을 펴 오다가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의 체결로 국권이 상실되자 저 먼 London에서 음독자결한 국은 이한응열사(菊隱 李漢應烈士) 또한 이동면 화산에서 성장하신 분이다. 특히 국은 이한응 열사는 순국열사 1호로 기록되어 계정 민영환(桂庭 閔永煥)·조병세(趙秉世) 등의 순국을 뒤따르게 하였으니 그의 충절은 가이 우러를만한 것이다.

충신이 배출되는 지역에서는 또한 효자·열부가 있기 마련이니 용인지방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조선시대 기록에 보이는 용인지방 최초의 효행자는 오민경(吳旻庚)이다. 그는 부모가 돌아가시자 6년동안 묘소를 지키면서 지냈고, 또 형과 형수가 일찍 죽자 그들의 소생 6명을 친자식같이 보살피 훌륭히 성장시키고 있다. 이로서 세종(世宗) 14年 9월에 조정에서는 그를 포상하여 정려(旌閭)의 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 채유천(蔡有天)도 영조(英祖) 때 “효행탁이(孝行卓異)”로 이름을 떨쳐 정려의 포상을 받았고, 양지출신의 김함(金涵)과 송지겸(宋之謙)도 효행으로 정려의 포상을 받고 있다. 이러한 효행은 일반 양인 뿐만 아니라 천민(賤民)들에게까지도 미쳐 영조때 사노 이상(私奴 李尙)은 그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자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잡아 그 배를 갈라 어머니의 시신을 구하여 장례를 지내 국가로 부터 정려의 포상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안희중(安禧重)·안희묵(安羲默) 등의 훌륭한 효행도 전해



지고 있거니와 특히 3대에 걸쳐 정려의 은전을 받은 어진혁(魚震赫)·어사랑(魚史郎)·어운해(魚雲海)의 효행은 특기할 만하며 그 외 열녀(烈女) 절부(節婦)로서 그 이름을 빛낸 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학자로서 문명(文名)을 떨친 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 도암 이재(陶菴 李紱) 선생이 그 대표적 예이다. 도암 이재선생은 성리학(性理學)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저술하여 관혼상제 등의 예의범절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용인에 퇴거하여 후진 양성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또 서예에도 조예가 깊어 후세에까지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밖에 용인출신의 이사위(李士渭)·이백지(李伯持)부자와 이사위의 증손인 이길보(李吉甫), 양지출신의 민치헌(閔致憲) 등 학자로 문명을 떨친 자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이렇듯 용인은 충신·효자·열부·학자 등을 배출함에 있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음은 용인지방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III

필자(筆者)는 앞서 용인이 충절(忠節)의 고향임을 말하였다. 그리고 선조들이 일찍부터 이곳에 정착하여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였음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예는 지금까지 이 지방에 남아 있는 문화유적에서 그 면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용인지방의 역사는 이 지방에서 발견된 마제석부·석검·석촉 용범(청동기를 주조하기 위한 틀, 또는 거푸집) 등의 선사시대의 유물과 지금도 그 거대함을 간직하고 있는 거석문화(巨石文化)의 대표적 유적이라 할 지석묘 등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용인은 지역 곳곳에 많은 역사의 채취가 남겨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채흔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민과 함께 호홉하고 있었던 친근의 역사이다. 특히 용인은 고려 이래 수도권의 외곽지역으로 수도방위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현존하고 있는 많은 土城이나 石城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중 고려말 몽고(蒙古)의 제 2차 침구시(侵寇時) 현재 남사면 마곡리에 위치해 있는 처인성(處仁城)에서의 김윤후(金允候)가 이끄는 처인부곡민(處仁部曲民)들의 몽군격퇴는 민중적 기반위에서의 승리라는 점에서 용인군민들의 충절을 새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의 항전(抗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용인군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폐사지(廢寺址)와 불상·탑 등의 불교 문화 또한 용인 문화의 흥륭을 아른거리게 한다. 이러한 불교조형물들은 다른 지방에 비해 화려하지도 않고 그 수준에 있어서도 뛰어난 예술성이 가미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곳곳에 산재한 채취에서 우리는 당시 백성과 호흡을 같이했던 서민문화(庶民文化)를 접할 수 있고 화려하지 않은 은은함과 수더분함 속에서 안락한 심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용인 문화의 특징이며 자랑이라 하겠다. 또 용인은 도자생산(陶器工業)에 있어서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미 9~10세기부터 조성된 용인의 가마에서는 고려백자(高麗白瓷)라는 우리 나라 최초의 백자를 생산하고 있었고, 대중의 애환과 민족의 독창적 색채를 발산하고 있는 분청사기가 또한 조선 초기인 15세기경에 이곳에서 구워지기도 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분청사기가 구워지던 시기보다 조금 늦게 생산되던 연푸른 빛의 백자회문 동물형 제기(祭器)가 용인에서 산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태전 필자(筆者)가 재직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 양지부근의 야산을 지표조사하던 중 그 파편을 다량 수집한 바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이를 단지 제례시(祭禮時)에 사용한다고만 기록하고 있어 그 자세한 용도는 더 꾸준한 조사와 연구의 진척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용인의 곳곳에는 가마터가 산재해 있어 용인지방의 융성했던 도자문화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재차의 이야기이지만 용인은 충절의 고향으로 많은 현인(賢人)들을 추모하기 위한 서원(書院)·사당(祠堂) 등이 건립되었는데 포은 정몽주(甫隱 鄭夢周) 선생을 기리기 위한 모현면 능원리의 그의 영당(靈堂)이나, 모현면 갈담리 과담부락에 있는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 선생의 사당(祠堂)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IV

용인의 산은 대개 400~500m 내외의 결코 높지 않은 산세(山勢)를 보인다. 용인의 산을 보고 있노라면 높지 않은 반면에 친근감이 있



고, 우람하지 못한 반면에 포근함이 있고, 빼어나지 않은 반면 구수하고도 따사로우미 있어 어머니의 품을 느끼게 한다. 그러기에 오르기를 원하는 이에게는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을 허락하고 모나지 않은 산세 또한 정답고 포근하다. 또 용인의 산록 곳곳에 산재한 현민·명사들의 유택은 항상 우리에게 외경스러운 마음과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한편 용인은 전래부터 도자공업(陶瓷工業)이 융성했음은 전절(前節)에서도 서술한 바이다. 이처럼 도자공업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흙이 고와야 하고 땀감이 풍부해야 하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야만 하는데 용인의 곳곳에 가마터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용인은 산림이 우거졌을 것이고, 또한 맑은 물이 흐르고, 고운 흙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 쉽게 짐작된다.

용인군내의 大小의 저수지—裙妓洞·笠洞·我梧洞·衙谷·廟洞·三隱·佳望谷·機物谷·文願錄·黔丹—가 산재하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 물이 많은 곳에는 안개가 많기 마련이다. 유난히도 저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용인의 여명은 안개를 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새벽녘 신선한 기운과 더불어 온 몸을 감싸는 짙은 안개속에서 하늘을 우러를때 보이는 충충한 별들은 누구에게나 시심(詩心)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자연에 귀화(歸化)하고 싶은 충동까지 일으키게도 한다.

필자(筆者)는 서울로부터 통근하는 덕택에 마석의 짙은 안개를 감상할 수 있는 혜택을 남보다 많이 누리고 있다. 언덕 위에서 안개가 자욱한 정취를 느끼고 있노라면 나 자신도 모를 무아지경의 도취감이란 자못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수상(水上)에서 낚시대를 던져 놓고 묵념하듯이 추를 응시할때, 안개를 가르며 오색 찬란한 빛이 비추는 저수지에서 맞이하는 새벽의 일점은 구도자가 해탈하는 바로 그 때가 아닐까.

이렇듯 용인은 저수지가 많고 안개가 자욱하며 산림이 우거지는 등 모든 조건이 마치 은자(隱者)의 마을을 연상케 한다. 세상의 영욕을 등지고 깊은 계곡에 초옥(草屋)을 마련하여 매양 낚시대를 드리우고 유유자적하는 은자의 이미지가 잘 맞아 떨어진다. 아닌게 아니라 고려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로 은거하였던 이석지(李釋之)가 찾았던 곳 또한 남곡(南谷)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은자가 거처했다고 해서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라 생각함은 편견일 게다. 이석지가 세상을 피해 용인 남곡에 처소(處所)한 것은 그 자신이 인간을 망각하고, 또 속세의 미진을 떨기 위해서 마치 아

이가 어미의 품에 안기듯 용인을 찾은 것이다. 그 만큼 용인의 산수는 세상의 미진을 모두 털어 버릴 수 있고, 또한 강렬한 인상을 주기 보다는 모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친근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자(仁者)는 산을 찾고 지자(智者)는 물을 찾는다”는 논어(論語)의 정의에 따른다면, 용인은 인자와 지자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곳임에 틀림없다. ▣

■ 현대인의 매너/레스토랑에서

● 나이프와 포크는 잘못 쓰면 흉기

- ① 포크와 나이프는 쥐고 흔들면 흉기로 변하므로 절대 흔들지 말아야 한다.
- ② 대화가 재미있어 흥분할 때의 제스처는 포크와 나이프를 접시 위에 걸쳐 놓고 우아하게.
- ③ 나이프는 절대 입으로 가져 가지 말아야 한다.
- ④ 고기나 야채를 자를 땐 왼쪽부터 자른다.

● 스푼을 먹을 때는 스푼을 바깥쪽으로 떠서 수직으로

- ① 접시를 들고 마시는 분은 식사예절을 모르는 분
- ② 스푼으로 뜸 수 없을 만큼 남았을 때는 그대로 남겨둔다(정식일 경우).
- ③ 정식이 아닌 경우에는 왼손으로 잡고 기울여서 떠 먹는다.

● 아무리 뜨거워도

- ① 음식이 뜨겁더라도 '후후' 부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
- ② 뜨거울 때는 스푼으로 저어서 식힌 후 먹는다.

● 양식중에 후루룩...?

- ① 양식중에 음식 씹는 소리 또는 마시는 소리가 후루룩, 후루룩 나서는 실례중의 실례.
- ② 스푼을 다 먹었을 때는 스푼을 시계바늘 9시15분 방향으로 놓으면 끝났음을 뜻하며.
- ③ 다 먹은 후 스푼을 엮어 놓으면 이 스푼은 맛이 엉터리란 뜻.

● 고기는 먹을 만큼 왼쪽부터

- ① 고기는 왼쪽부터 먹을 만큼 한번씩 잘라 먹는다. 미국에서는 한꺼번에 모두 잘라 놓고 난 후 포크만 오른손에 들고 먹으나 유럽에서는 실례.
- ② 고기 옆에 놓여진 파세리는 장식용으로 놓여진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 ③ 생선 요리는 머리와 꼬리를 돌리면서 먹을 수 없으나 고기는 마음대로 뒤 바꾸어 먹어도 상관 없다.

● 새우 요리가 껍질째 나오면

- ① 새우 요리가 껍질째 나오면 배를 잘라서 안의 살만 빼내어 먹는다. 절대로 칼로 토막내어 껍질까지 입에 넣어 씹어서 뱉지 말도록.
- ② 꼬치 요리가 나오면 전부 꼬치에서 빼내어 하나 하나 먹는다. <20 page 에 계속>

함박골의 봄

金 美 叔

사시사철을 하루도 그냥 머무는 법 없이 순간마다 변화하는 자연, 일찌기 스피노자가 이 자연에 눈을 돌리고 哲學을 論하였지만, 그런 딱딱한 용어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의 날카로운 오관의 움직임과 끓어오르는 심장의 열망으로도 능히 그들의 몸짓하는 뜻을 안다.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가 사계(四季) 가운데 봄이요, 하루 중에서도 아침이다. 새벽비라도 한바탕 쏟아지고 난 후이면 학교에 가는 길에 보는 자연은 바로 순결한 처녀의 비누 냄새 나는 신선함이다. 함박골은 또 유난히 안개가 많다. 안개 낀 아침에 아무도 지나가는데 없는 길을 오르노라면,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환각을 경험하곤 한다. 안개에 가려진 주위의 산과 들, 정적, 천사의 옷자락같은 안개, 보이는 것이 오직 한 치 앞의 하늘로 뻗은 길 뿐이다. 들리는 것도 또한 각각거리는 까치소리, 어느 슬픈 소녀의 낮이 분명한 듯 서글프고 고운 울음을 토해 내는 새소리, 휘파람 소리같은 지저귀음을 하다가 길게 여운을 내면, 또 맞은 편에서 같은 소리로 화답하던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목울림, 여름날의 고적한 뻐꾸기 울음들 뿐이다.

지금 봄이 한창인 이 곳 함박골의 아침은 경이, 그리고 신비 그 자체이다. 이제 금방 바닷 속에서 건져 낸 수중초(水中草)같은 신록의 하늘거림, 나즈막한 산이 마치 분홍색 치마를 두른 듯 만발한 진달래, 군데군데 배꽃같은 하이얀 꽃이 피어 눈길을 모으는 나무들, 마치 꽃처럼 수줍게 솟아오른 속살의 보드라운, 그 여린 새순의 아찔한 향내. 양지바른 뿔등에서든지, 뾰지 않는 논두렁에서든지 지천으로 피어 있는 양징맛은 제비꽃, 할미꽃, 민들레, 하얗고 노란 이름없는 풀꽃, 그 청초함이며! 나의 감각이 무디어 미쳐 눈을 돌리지 못한 수 많은 초목의 새로운 몸단장, 어여쁜 속살거림이 이토록 풍요로운 봄을 꾸민다.

함박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철을 한시도 내 눈길이 머뭇거릴

틈을 주지 않고 유혹한다. 표정 가득히, 손짓, 몸짓으로, 온 몸으로 내 눈길을 빼앗는다. 그것들에 인사를 건네고, 만져주고 어릿광도 받으며, 한마디 화답이라도 할라치면 나의 눈이, 그리고 손과 발이 열개 백개가 있어도 정녕 부족하리라. 그러나 나의 오관이 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지는 말자. 오히려 마음의 눈을 뜨고 생명의 귀를 열어 육신의 나를 잊으면 내가 곧 그들이려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잊고 사는 것 같다. 계속되어지는 생활의 굴레를 마치 숙명처럼 걸머지고 그 무게에 눌러 허우적이는 일생을 산다. 때로 뒤를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곤 하지만 정녕 다시 태어나는 기쁨과는 먼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순간마저 포기하지는 말자.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보다 자주 나타나도록 해야겠고, 그리고 때로 자연에 눈을 돌려 그의 힘으로마다 정화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얼마나 다행이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다 볼 산 하나 없는 도심에서 벗어나 이렇게 혜택받은 함박골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그나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산천의 초목들이 해를 바꾸어 항상 새로이 옷을 바꾸면서 입듯 우리 영혼의 옷도 그렇게 바꾸어 입을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四季가 있게 하고 함박골의 봄의 향연을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베풀어지게 할 일이다. ■



(詩)

아 내

박 상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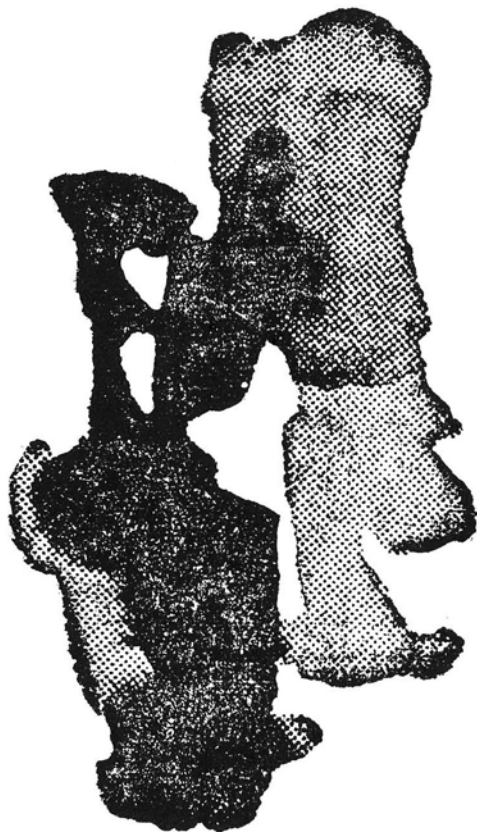
흔들리는 세상위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음은
그대의 시선이
머무르는 때문이다.

삶의 미로
술한 갈림길을 방황하지 않음은
그 대가 나의
빛인 까닭이다.

어떠한 숙명도
달리 바꾸어 놓지 못할
나의 꿈
그림자여!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마저
아낌없이 불태워 오히려 기꺼움은
그대가 나의
모두인 까닭이다.

가슴을 몽땅 살라버리고픈
나의
온
삶.



(詩)

무 풍 지 대

이 길 호

나의 바람이었고
너의 바람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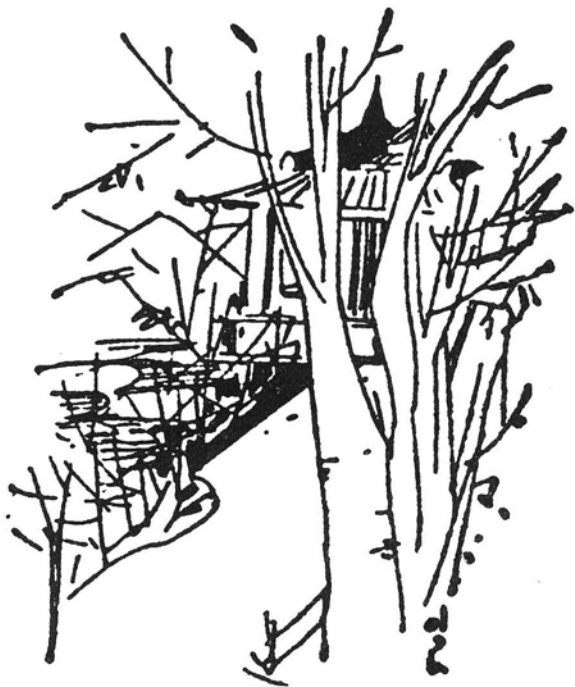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거웠었어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이곳에 이르렀네

이제는
잠시 쉬어서
뒤돌아 보아야해

힘겨웠다고
투정 부려서 미안하다고
싱거운 글을 전하며

이제
또
어울려 가야해

앞으로 앞으로
시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金(금)과 金(김)

石 岡

우리가 平素에 쓰고있는 漢字는 그음이 대개는 1音으로 돼있지만 2개音 或은 3·4개의 音까지로 된것도있다. 例를들면 數字같은 경우는 돈, 퇴, 대, 단, 조 等 5音까지로 된것도있고 度字도 도, 탁 等 2音으로 쓰이고있다. 이렇듯 이밖의 數많은 多音의 漢字들을 一一히 列擧하는것은 뽀하기로하고 이번機會에는 우선 金字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보기로한다.

우리郡의 郡廳所在地인 龍仁邑金良場里라고 쓰이고있는 漢字中 金字는 (금)이 아니고 (김)으로 音하고있다. 흔히 쓰기를 쇠(금)字라고해서 (금)으로 音하고 있어서 間或 書信이나 文書에 記錄했을 때 漢字로 쓴것을 잘모르는 他地域의 사람들이 이를 한글로 고쳐쓸 境遇(금)으로 發音하여 “금량장리”로 쓰는수가있다. 郵便物을 받았을때 이러한 實例는 많이있다. 우리고장의 地名인 金良場里는 한글로 쓸때는 반드시 (김)으로 發音하여 “김량장리”로 쓰도록해서 그갈뭇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參考가되게 하고싶은 마음에서 이에 몇가지 그 理由라고 할까 實除의 考證을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한다. 어느사람은 이런 問題에 對해서 그런것쯤 (김)을 (금)으로 썼다고 해서 바로잡으려고 問題 삼을것까지는 없지않으나…며 대수롭지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特히 우리고장 出身의 知識層人士들 中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것을 들을때는 遺憾스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지난 1982年 이른봄 어느날 市内 어느 가게앞을 지나려니까 오래前부터 잘 알게되어 가까히 지내던 사이로 親兄弟와도같이 親近해진 金某君을 만나게 됐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마침 잘만났다며 茶나한잔 하시죠! 하면서 그近方에있는 茶房으로 들어가 “커피”를 한잔씩 들며 이야기를 하게됐다. 그內容인즉 市内 東쪽에 南北으로 흐르는 河川이 있는데 이에 國道를 따라

건네게되는 橋梁이 路幅보다 좁은 橋幅이던것을 그前해에 擴張工事を 하게 돼 난간도 새로고친 일이었다. 이난간의 標石에는 漢字로 金良川橋라고 彫刻했던것을 施工者가 한글로 고치면서 “금량천교”라고 彫刻 돼있는것이 問題가된 話題의 실마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目的은 河川의 이름은 “김량천”이라 부르면서 다리의 標識는 “금량천교”라고 한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잘못이 나에게 있어서 하는말이 아니고 올바르게 고쳐야 되겠다는 一念의 뜻에서 하는 말이다. 그는 龍仁出身도 아니고 忠淸道出身인 他鄉人이다. 그러나 이곳에 定着한지는 30餘年이나 되므로 第2의 故郷이 될 수 있을 程度의 愛郷人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고장에서 先生한 本土人의 立場에서 이러한 指摘을 할 수 있게된 그의 말을 들으면서 啞然 無色함을 느꼈다.

그後 이問題는 結局 우리들의 主動(?)으로 當局에 建議되어 얼마後 “김량천교”라고 고쳐놓았다.

여기서 잠시 金良場里(김량장리)라고 里名을 짓게된 來歷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금으로부터 約 300餘年前 現龍仁邑古林里 古陣部落에 「金良」 이라고 하는 이가 富者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占術을 하는사람을 만나게되어 장차의 身數吉運의 繁盛을 祈願하기 爲해서 “저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라는 말에따라 “장터”를 만든것이 緣由가되어 그의 功績을 永遠히 기려 그 이름을따 場字를 붙여 金良場이라고 한것이 지금의 金良場里로 짓게된 것이라고 傳해지고 있다.

그의 13代孫이되는 金某氏(86년에 別世함)를 만나 家譜의 記錄을 살펴본즉 「性章 字 舜載又良 甲子生 武折衝將軍乙巳 二月二日卒 配慶州襄氏 墓龍仁面銀德谷亥坐合墳」이라고 돼있다. 이 記錄에서 그의 字인 舜載又良 中에서 良字를 쓴것이라 생각 된다.(1624 ~ 1665) 이렇듯 金良場里는 人名에서 딴것이므로 반드시 金(김)량장리 라고 音해야 된다. 漢字辭典을 보면 鑛物인 金은 (금)이고 姓과 地名은 (김)으로 音하게 돼있다. 金浦, 金泉, 金海, 金堤 等은 모두 김(김)이라 하고 다만 地名이라 할지라도 物質的인 金(금)을 象徴的으로 할때는 다르다. 例를들면 金剛山, 金谷, 金材 等……

나는 이번機會에 金(금)과 金(김)의 發音에 對해서 위와같은 이야기를하면서 參考 하는데는 多少 未洽한 點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만 내고장의 地名

을 分明한 音으로 올바르게 쓰고자하는 慾心에서 써본 것이므로 先輩 또는 著名人士 여러분들이 誤解없이 이뜻의 弘報가 더욱 倍加될 수 있도록 協調가 있기를 懇切히 바랄뿐이다. ■

< 13 page 에서 계속 >

● 닭 튀김도 나이프와 포크로

- ① 닭은 관절부분을 잘라서 포크로 먹어야 하는 데 닭다리 속에 관절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찾아보는 수밖에.....
- ② 은박지로 닭뼈 부분이 감겨져 나올 때도 나이프와 포크로 드시도록. 은박지는 뼈를 감추기 위해 보기 좋게 꾸미느라 감은 것임.
- ③ 옛날 산적들 처럼 닭다리를 들고 뜯는 에티켓은 산속에서나.....

● 옥수수나 콩을 먹을 때

- ① 옥수수나 콩요리는 포크를 스푼 쥐듯 쥐어서 안쪽으로 잘 떠서 먹도록.
- ② 포크 뒤를 사용해서 먹지 않도록.

● 빵은 조금씩 손으로 떼어서 입으로

- ① 빵은 스푼가 끝나면 먹기 시작한다.
- ② 버터볼에 있는 나이프로 버터를 자기 빵 접시에 가져다 빵 접시에 있는 버터 스프레터로 버터를 빵에 바른 후 입에 들어갈 만큼 떼어서 먹는다.
- ③ 버터ナイ프 . 버터스프레타가 없으면 고기용 나이프를 사용.
- ④ 빵은 나이프로 자르지 말고 꼭 손으로 떼어서 먹는다(교회에서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므로 칼은 실례임).
- ⑤ 빵은 오른손으로 먹을 것.
- ⑥ 빵이 모자랄 때는 추가도 무방함. 웨이터에게 부탁한다.

● 과일 씨앗도 교양있게

- ① 과일 씨앗은 스푼이 없을 땐 스푼에 뺏어서 접시에 놓는다.
- ② 스푼이 없을 땐 손을 입에 가까이 대고 뺏어 접시에 놓는다.
- ③ 직접 입에서 접시로 뺏는 행위는 식사 최악의 매너라고.

● 바나나를 먹을 때

- ① 식사 후 과일로 바나나를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긴 다음 통째로 입으로 가져가면 보는 사람이 눈쌀을.....
- ② 껍질을 벗기고 나이프로 잘라서 포크로 먹을 것.

● 포도주(와인)는 이렇게

- ① 포도주를 따를 때는 글라스에 바짝 대지 말고 약간의 간격을 두어 따를 것. 부딪치면 깨질 염려가...
- ② 포도주 글라스는 항상 포도주가 2°C 를 유지하도록 아랫부분을 잡는다. 윗부분을 잡으면 체온에 의해 포도주가 데워질 경우가 있다.
- ③ 자기가 포도주를 따를 때는 글라스는 테이블 위에 놓은 채로 따른다.
- ④ 글라스는 꼭 놓여져 있던 자리에 다시 놓는다.
- ⑤ 와인은 만든지 12년 된 술이 가장 맛이 좋다고.
- ⑥ 와인은 마시기 전에 약간 냄새를 맡아 향기를 음미한 후에 마시는 게 예의.

< 30 page 에 계속 >



꽃 꽃 이



“ 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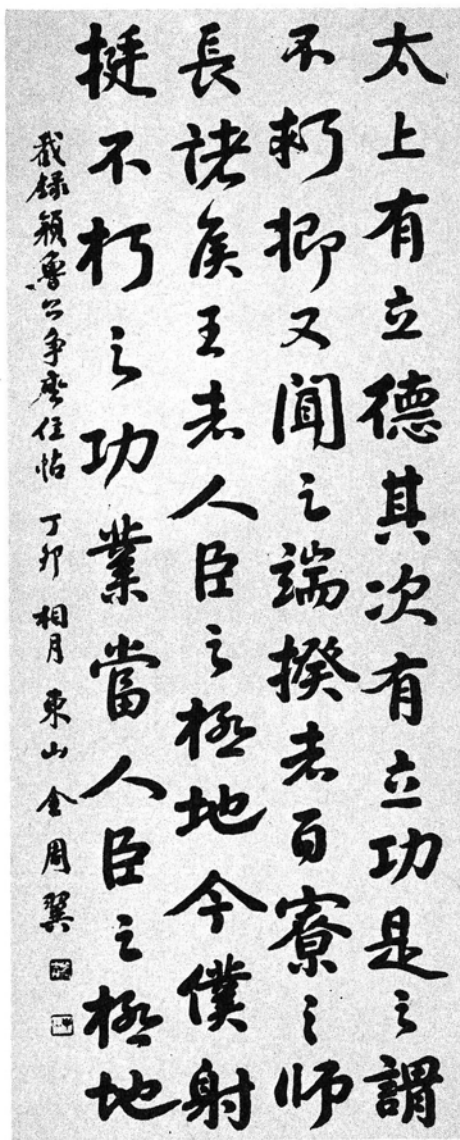
아름다움과 향기를
동반하여
맺은 인연의
소산이어라.

아름다움의
극치이어라.

지 도 : 오 민 근

사 범 : 이 현 숙

소 재 : 향나무, 백합, 튜울립, 엔젤, 안개



이 爭座位帖은 眞卿이 定襄郡王에게 보낸 書信의 草稿로서 그 內容이 座位의 爭論이므로 이것을 爭座位帖이라고 한다.

爭座位帖은 眞卿의 작품중에는 걸작으로 친다. 行間에 써 넣은 것 을 제외하고는 行, 草, 行書로 써 겨었다.

안진경의 意氣軒昂, 唐朝의 권위를 지키는 것은 자기뿐이라는 자신에 차서 행동하고 있었던 시기의 작품이다. 안진경의 字는 淸臣이고 8세기 초부터 말엽까지 (709 ~ 785) 생애에 파란을 극하고 불행한 최후를 마쳤다.

眞卿은 玄宋의 天寶 13年(754) 시대부터 이름이 났고 이 작품은 廣德 二年(764) 11月 56세때 쓴 것이다.

截錄한 作品의 內容은 —

태상은 德을 세움에 있으니 그 다음은 功을 세움에 있으니 이것을 木朽라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듣건대 宰相은 百寮의 師長이오 諸侯王은 人臣의 極地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僕射는 불후의 功業에 뛰어들어났고 인신의 극지에 이르렀습니다.

東山 金周翼

구혼례의 節次

여기에 기술하는 식순은 古禮의 혼례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사례편람과 한 국민속촌 자료를 참고해서 기술 하였다.

- 編輯者註 -

1. 古禮의 六禮

近古時代に 있어서의 한국의 혼인례는 국가의 典禮와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六禮의 혼인이 한국적인 민속성을 가진 혼인풍속으로 정착되었었다.

六禮란 ① 납채(納采) ② 문명(問名) ③ 납길(納吉) ④ 납징(納徵) ⑤ 청기(請期) ⑥ 친영(親迎)을 말한다.

① 납채는 신랑될 사람 집에서 신부될 사람집에 혼인을 청하는 의례이며

② 문명은 혼인을 청한 여자의 장래 운수를 점치기 위해 그 어머니의 이름을 묻는 절차였고

③ 납길은 혼인날을 받아 신부집에 보내는 격식이다.

④ 납징은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푸른비단과 붉은 비단을 보내는 예식이고

⑤ 청기는 택일을 하여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신부집으로 보내는 의례이며

⑥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서 신랑신부는 귀밑머리를 마주 올렸고 백년가약을 완성하는 부부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2. 大禮笏記(대례홀기)

◎ 新郎出東階(신랑출동계)

① 신랑은 사모관대에 목화(木靴)를 신고 안부(雁夫)와 함께 정방에서 전안청으로 나온다.

② 신랑은 동쪽을 향해 선다.

※ 정방이라 함은 신랑 일행이 잠시 여장을 풀고 쉬는 곳으로 한 집의 사랑채와 방 하나를 빌며 신랑이 온 방향에서 신부집을 건너지 않는 곳으로 정한다.

◎ 贊引就西階揖(찬인취서계읍)

① 찬인은 서쪽을 향해 선다.

② 신랑에게 읊을 한다.

◎ 新郎答揖(신랑답읍)



① 신랑은 답으로 읊을 한다.

◎ 就奠雁廳跪 (취전안청 꿇)

① 신랑은 전안청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 抱雁置雁于地 (포안치안우지)

① 신랑은 안부로부터 기러기를 받아 기러기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안는다.

② 신랑은 기러기를 상위에 내려 놓는다.

※ 옛날에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나무로 채색한 기러기를 사용한다.



혼례에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설도 있다. 그것은 天上의 北斗九辰(북두구진) 가운데 인간의 壽福(수복)을 맡은 紫薇聖君(자미성군)에게 수복을 빈다는 것이다. 즉 자미성군은 인간세계의 수복을 맡은 天官(천관)으로 혼인도 이 자미성군이 마련한 것이라 믿어 기러기를 선물로 바치고 백년해로를 맹세하여 수복과 자손의 번영을 빌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러기는 이러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북쪽에 사는 날 짐승으로 신성함을 상징하고 또 무리를 지어 생활하므로 화목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기러기는 한 번 짝을 지으면 헤어질 줄 모르는 새로서 금실을 상징하고 설령 혼자가 되어도 굳굳하게 평생을 홀로 사는 절개와 의지의 날 말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혼례에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이와 같이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으로 맞이 하라는 것이다.

◎ 興再拜 (흥재배)

① 신랑은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 小退 (소퇴)

① 신랑이 한 발 물러선다.

※ 이것으로 전안례는 모두 마치고 두번째 과정인 交拜禮(교배례)로 들어간다.

◎ 揖就大禮廳東向立 (읍취대례청동향립)

① 신랑은 읊을 하고 대례청 동쪽에 나가 선다.

② 이 때 신랑이 동북쪽으로 약간 돌아서 외면을 하고 선다.

◎ 新婦出 (신부출)

① 신부가 수모의 도움을 받아 대례청에 들어와 대례상 서쪽에 나가 선다.

② 신부가 대례청에 나와 서면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정립한다.

◎ 新郎 新婦 各 跪 (신랑신부각 꿇)

① 신랑신부가 무릎을 꿇고 앉는다.

◎ 盥 洗 位 盥 洗 執 巾 (관세위관세집건)

① 신랑이 남쪽에 있는 대야에 손을 씻으면 신부의 시자가 수건을 바친다.

② 신부가 북쪽에 있는 대야의 물에 손을 씻으면 신랑의 시자가 수건을 바친다.

◎ 新郎 新婦 興 (신랑신부흥)

① 신랑과 신부가 일어선다.

◎ 新郎 揖 就 席 跪 (신랑읍취석 꿇)

① 신랑이 신부에게 읍을 한 후에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 新 婦 再 拜 跪 (신부재배 꿇)

① 신부가 신랑에게 큰절을 두 번 한다.

② 신부가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는다.

◎ 新郎 興 答 單 拜 跪 (신랑흥답단배 꿇)

① 신랑이 일어선다.

② 절을 한 번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 新 婦 興 再 拜 跪 (신부흥재배 꿇)

① 신부가 일어선다.

② 신부가 큰절을 두 번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는다.

◎ 新郎 興 答 單 拜 (신랑흥답단배)

① 신랑이 일어선다.

② 신랑이 한 번 절을 한다.

◎ 新 婦 興 (신부흥)

① 신부가 일어선다.

※ 交 拜 禮 과정이 끝나고 齎 盃 禮 (근배례) 과정으로 들어 간다.

◎ 新郎 新 婦 各 跪 (신랑신부각 꿇)

① 신랑과 신부가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는다.

◎ 行 齎 盃 禮 (행근배례)

銀 盃 陶 盃 瓢 盃 (은배 도배 표배)

* 은배 : ① 신랑쪽 시자가 술잔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갔다가 청실홍실 위로 해서 신부쪽으로 준다.

② 다음은 신부쪽 시자가 술잔에 술을 따라 신부에게 갔다가 청실홍실 밑으로 해서 신랑쪽으로 준다.

* 도배 : 은배와 같이 반복한다.

* 표배 : 은배 도배와 같이 반복하며 이 때는 신랑이 술을 조금 먹는다.

◎ 執 酌 舉 肴 (집작거효)

① 신랑쪽 시자가 나무젓가락에 밤을 집어 신랑에게 준다.

② 신부쪽 시자가 나무젓가락에 대추를 집어 신부에게 준다. 이 때 밤과 대추는 먹는 시늉만 한다.

◎ 新 郎 新 婦 興 各 已 處 所 (신랑신부흥 각기처소)

① 신랑과 신부가 일어선다.

② 신랑과 신부가 각기 처소로 간다.

※ 이것으로 신랑은 신부집에서 예를 모두 마치고, 신부집에서 초야를 치르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는 것을 우귀(于歸)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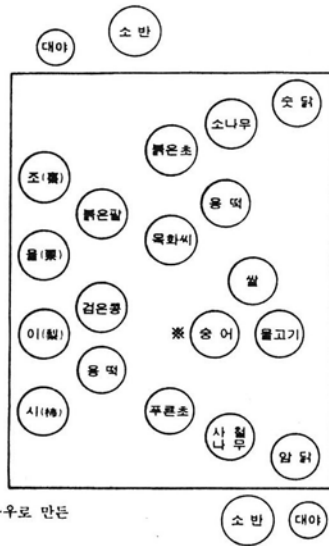
이 때 신랑은 신부집에서 1일 또는 3일, 5일, 7일을 묵고 갈수도 있다. 또한 '해묵이'라고 해서 그 해를 넘기거나 몇 년을 신부집에서 거주하다가 가는 풍습도 있었다.

※ 대례상 진설도



1. 자손의 번창과 화목 (닭, 쌀, 콩, 송어, 물고기)
2. 악귀의 침범을 방지(팥)
3. 수명(목화씨)
4. 굳은 절개 의지(사철, 소나무)
5. 과일(조-왕, 울-3정승, 이-6판서, 시-8도관찰사)

※ 지방에 따라 송어, 물고기 또는 무우로 만든 물고기 형상을 진설한다.



(소반) 술잔, 술병, 뉘주잔
나무젓가락, 수건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 (Ⅱ)

湖 巖 美 術 館 研 究 室 長
金 載 悅

(一)

앞 호에서 필자는 개략적으로 우리나라 先史文化의 바탕이 北國 시베리아 文化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를 北國文化의 요소가 표현되어 있는 先史美術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석기시대가 끝나고 인류는 신석기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 새로운 신석기시대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것이 土器의 발명이다. 土器는 인류가 최초로 흙과 불을 이용해 물질 자체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인간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인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토기의 발명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인류가 처음 土器를 발명한 것은 대략 1만년전의 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대략 7,000~8,000년 전부터 土器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석기시대 우리나라 土器는 소위 빗살무늬토기로 대표되는데, 빗같은 도구로 그릇의 표면에 고기뼈(魚骨)같은 형상의 무늬를 장식한 것이 특징이며, 그릇의 모양은, 계란을 반으로 잘라 놓은 것 같이 길쭉한 半橢圓形이라 밑바닥은 둥그스름하거나 뾰족한 것이 많으며 동해안 함경도 일대에서도 바닥이 편평한 것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빗살무늬토기는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어쨌던 이 토기들은 시베리아 일대의 신석기시대 土器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근 中國에서는 이 시기의 토기가, 그릇 표면에 검은 색이나 붉은 색의 물감을 사용해 무늬를 그려 장식한 채도(彩陶)가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 土器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같이 中國과는 다른 빗살무늬토기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신석기문화를 담당했던 주민들 역시 종족상으로도古시베리아족이었던 만큼 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토기 또한 시베리아일대의 신석기문화와 관련된 것임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文化는 고기잡이와 사냥을 생활바탕으로 하는 北方

系文化인 까닭으로,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풍요와 多産을 상징하는 母神像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타 美術品들도 발견例가 극히 드물다. 다만 呪術的인 기능으로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出土의 흙으로 빚어 만든 사람얼굴모양장식품이나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에서 발굴된 조개껍질로 만든 人間이 주목되고 있다.

(二)

기원전 1,000년경, 즉 지금부터 3,000년전부터 우리나라는 청동기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우리 민족의 실질적 조상이 되는 ‘통그스족’의 일파가 시베리아 지방에서 南下하여 시작된 청동기시대는 사실상, 종족상으로 보나 문화상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뿌리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사용한 土器는 여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빗살무늬토기가 사라지는 대신 무늬가 없는 無文土器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릇의 형태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平安道地域에서는 팽이같이 생긴 토기가 유행하고 咸鏡道와 漢江以南地域에서는 花盆形의 토기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자장 대표적인 청동유물로는 소위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을 들 수 있다. 청동으로 만든 칼의 모양이 마치 비파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특징적인 칼은 한반도 인근의 遼東半島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데, 요동반도는 이당시 中國文化圈에 속한다기보다는, 시베리아에서 東進한 文化가 이곳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는 중간지점이었다. 따라서 요동반도 일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청동기文化를 갖고 있었다. 이 칼의 특징은, 칼의 몸체와 칼손잡이가 따로 만들어졌다는 점으로, 이당시 中國의 칼이 몸체와 손잡이가 함께 주조된 것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청동으로 만든 도끼는, 시베리아 우랄산맥지역의 것이 東쪽으로 퍼져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시베리아 도끼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청동제 손칼 역시 北方的 文化요소인 하나이다. 특히 청동거울은 꼭지가 2~3개씩 달린 多鈕鏡(다뉴경)으로 독특한 번개무늬나 삼각형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들 역시 꼭지가 중간에 한개만 달린 중국거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동시대에는 본격적인 예술작품이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岩刻 画이다. 절벽의 편평한 바위면에 새기거나 쪼으거나 해서 그림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경남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盤龜臺) 암각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너비 8m, 높이 2m의 암벽의 구획 안에 호랑이, 개, 사슴, 돼지, 山 羊 등의 들짐승이나, 그물이나 울(木柵)안에 갇힌 듯한 짐승, 여러 사람이 탄 배, 사냥꾼 또한 巫師의 모습등이 나타나 있고, 짐승 중에는 잉태한 것, 식도, 내장등 소유 生命線이 표시된 이른바 ‘렌트겐’식 그림으로 된 것도 있다. 이 岩刻 画은 북부 유우라시아에 퍼져 있는 先史時代 사냥을 위한 제 사유적으로서의 岩刻 画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先史文化가 시베리아地方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美術 作品이다.

(三)

청동기시대의 후기가 되는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鐵器가 출현한다. 이 鐵器는 인류가 그때까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실용적인 쇠붙이로서, 이 鐵器의 발명으로 하여 무엇보다 인간의 생산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富의 축적이 이루어져 古代國家가 출현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주었다. 보통은 이 鐵器를 사용하면서 바로 鐵器時代로 전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후의 시기까지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사용되거나 A.D. 0년경 부터 본격적인 鐵器時代로 돌입하게 된다. 이 시기를 고고학에서는 初期鐵器時代 또는 청동기시대 후기라 부르고 있고, 역사상으로 三 韓時代에 해당되고 있다.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는 서서히 中國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중국으로 부터 鐵器文化가 유입되면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생활 용구의 제작에는 중국식 鐵器의 사용이 불가피했을지 모르나, 신분을 상징하던가, 장식적인 것이나 儀器의인 것을 위해서는 아직도 청동기가 많이 사용되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더욱 독특한 한국적 청동기 文化가 활짝 꽃피우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청동기는 細形銅劍이라 하여, 前述한 비파형 동검이 변화하여 칼의 폭이 가늘고 좁아진 형태로 변한 것이다. 이 세형동검은 한 반도에서만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특히 ‘한국식동검’이라 불리고 있

는데, 이 칼은 그때까지의 기술을 토대로 한반도내에서 이미 완전히 독자적인 청동기文化를 이룩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더우기 이 세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청동기文化는 비단 우리나라 각지에 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日本에도 깊은 영향을 주어, 일본이 오랫동안 지속해 오던 後進的인 신석기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동기文化를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日本九州지방에서는 이 한국식 세형동검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당시 청동으로 만든 미술품에는 역시 北方文化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大邱 飛山洞 出土의 세형동검 손잡이부분의 장식을 보면, 두마리의 오리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술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걸작품으로, 당시의 높은 文化水準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새나 오리, 말, 호랑이등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미술품들은 그 근원을 시베리아의 ‘스키타이’ 動物美術에 두고 있다. 말을 타고 유목생활을 하던 ‘스키타이’族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매우 우수한 미술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 미술품에 까지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북 永川 漁隱洞에서 나온 馬形, 虎形의 두개의 帶鉤(허리띠를 연결하는 가운데의 바클)는 스키타이 動物美術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 作品으로, 말의 경우 馬體의 팽창하는 힘이 사실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어, 이 시기 미술품중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본 바대로 우리나라의 先史文化는 北方 시베리아文化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에는 그런 요소가 더욱 강해지면서, 후기에는 고도로 발달한 독자적인 청동기文化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는 古朝鮮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古朝鮮이 이러한 청동기文化를 바탕으로 하여, 中國의 강대한 정복국가였던 漢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항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말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일국가로 엄청난 鐵器文化의 위력을 지닌 거대한 漢帝國과 맞서 피나는 전쟁을 치뤄야했던 古朝鮮이란 나라는, 단순한 領土戰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異民族, 異質文化 간의 전쟁이라는 즉, 中國文化와는 그 뿌리가 다른 北方文化民族으로서의 自矜心을 갖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했던 숙명을 지닌 나라였다고 믿어진다.

B.C.108 년에 古朝鮮이 망하고 우리나라에는 韓四郡이 설치되면서, 특히 樂浪郡을 중심으로 하여 中國文化가 본격적으로 들어와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北方文化와는 관계가 끝나면서 어쩔 수 없이 中國文化의 영향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중국의 강한 영향 속에서 끊임 없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면서 우리 만의 고유한 文化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先史時代에서 형성되었던 우리의 뿌리가 그만큼 강하고 알차고 길었음에 있다고 믿어지는 바이다.

< 20 page에서 계속 >

⑦ 와인은 사양해도 되나 글라스를 얹어 놔서는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므로 절대로 안된다.

● 비프스테이크는 소의 어느 부분이... ?

① 윌레(불어, Fillet), 텐더로인(영국, Tenderloin) : 가장 연한 고기

② 씨로인(Sirloin) : 힘줄이 있으나, 기름기가 적은 고기.

③ 리브스(Ribs) : 갈비에 해당되는 기름기가 있는 고기로 맛은 있으나 담백하다. 윌레에 다음가는 1급품. 비프·스테이크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구울 것인가 말할 것.

① 레어(Rare) : 피가 보이도록 약간 익힘.

② 미디엄 레어(Medium Rare) : 표면은 약간 익히되 자르면 피가 있을 정도로 익힘.

③ 미디엄(Medium) : 보통으로 익힘.

④ 미디엄 웰(Medium well) : 보통보다 조금 더 익힘.

⑤ 웰 던(Well done) : 아주 익힘.

● 커피와 차를 마실 땐

① 홍차는 웨이터가 컵의 손잡이를 왼쪽에 놓는다. 티 스푼은 컵의 앞에 놓이게

된다. 그때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티 스푼으로 저은 다음 티 스푼은 컵의 뒷쪽에 놓고 손잡이를 오른손 쪽으로 돌려서 오른손으로 마신다.

② 커피는 그대로 컵의 손잡이가 오른손 쪽에 놓여지게 되며, 커피 스푼 만 앞에 놓이게 된 것을 사용후에 컵의 뒷쪽에 놓으면 된다.

● 담배 냄새는 요리 맛을 둔하게

① 식사 중에는 금연하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다.

② 재털이가 있을 때도 고기요리가 끝날 때까지는 금연.

③ 이유는 양식은 미각으로 1/3, 씹는 맛 1/3, 냄새로 1/3을 즐기므로 담배 냄새는 맛을 둔하게 한다.

● 어디에서나 레이디 휘스트

① 식단에 도착하면 남자는 여성이 편리하게 앉도록 도와준다.

② 남자는 여성이 전부 앉기 전에 앉으면 No 신사.

③ 의자는 왼쪽에서 부터 들어가 않는다.

④ 여성은 핸드백을 무릎 위나 의자의 왼쪽 아래에 놓는다.

< 47 page 에 계속 >

용구 (龍駒) 별장으로 떠나는
이석지 (李釋之) 에게 *

이 색 지음
홍 순 석 옮김

남곡 이선생은
나이 들어도 건장하여
흰 머리털 붉은 뺨에
광채를 띠고 있으며,
어지러이 노니는 좌석에선
명성 더욱 뛰어나고
문단에서도 우뚝하여
지취 절로 빼어났건만,
떠나는 당일에는
친구들 얼마 남지 않았고
늙으막에 자녀들만
줄을 지어 있네.
아무런 까닭없이
평생의 회포 쏟아 놓는데
다행히도 시골집엔
술익어 냄새 가득하네.

同年李判書釋之將歸龍駒別墅來告別且徵贈言走筆塞責。

南谷先生老益強 白鬚紅頰照人光
爛游舞席名尤重 孤立詞林趣自長
當日友朋森可數 晚年兒女忽成行
無由倒瀉平生抱 幸是田家酒已香

〈牧隱集, 券 30:12〉

* 본래 제목은 「같은 해에 이판서 석지가 용구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찾아와서 고별하며 급히 글을 써달라고 조르기에 책임을 면하고자 짓는다」이다.

** 이 글은 이석이가 이석지를 위하여 지어 준 「南谷記」와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사은정기 (四隱亭記)

정 범 조 지음
홍 순 석 옮김

사은정(四隱亭)은 문정공(文正公) 정암(靜菴) 조선생(趙先生) 이도(道)를 강론(講論)하던 곳이다. 정자(亭子)는 구성(駒城)¹⁾의 치소(治所) 남쪽 취봉(翠鳳), 보개(寶蓋) 양산(兩山) 가운데, 높은 벽과 층층(層層)한 바위, 맑은 시내와 구부러진 물의 승경(勝景)이 있다. 정자(亭子)를 「사은(四隱)」이라 이름한 것은, 숨어서 농사짓고, 숨어서 놀기 때문에 선생께서 숨어서 즐긴다는 뜻을 붙인 것이다. 중종(中宗)은 등극(登極)하자, 곧 측근(側近)에 어진 신하를 구(求)하여 두고, 힘써 나라를 다스릴 계획을 도모하며, 크게 이뤄 보려는 뜻을 가졌었다. 그리고 선생은 곧은 도(道)와 바른 학문(學問)을 닦아 성(聖)스러운 임금(聖君)을 만나서, 큰 피로 날마다 도와서 삼대(三代)의 옛 업적²⁾을 돌이켜 이뤄보는 일이 자신의 책임(責任)이라 여기셨으니, 돌아보건대, 어느 겨를에 사은(四隱)이 즐거움을 즐겼겠는가.

예로부터 성현(聖賢)의 출처(出處)와 현회(顯晦)³⁾가 어찌 항상 같았으리요, 때를 따라서 계양(揭揚)하고 힘써 의(議)에 적합(適合)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윤(伊尹)이 아형(阿衡)의 중책(重責)을

-
- 1) 구성(駒城); 용인의 옛 이름. 지금의 구성면 마북리 지역에 해당한다.
 - 2) 삼대(三代)의 옛 업적; 중국 하(夏)·은(殷)·주(周) 3대 임금이 배운 태평성세의 치적을 말한다.
 - 3) 출처(出處)·현회(顯晦); 출처(出處)는 벼슬길에 나가고, 물거나 은거함을 이르는 말이며, 현회(顯晦)는 이름이나 업적이 겉으로 드러나 널리 알려지거나, 가리워져 드러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말게 되었어도 물러나 돌아 가자고 하였고 4) 주공(周公)은 숙부(叔父)인 걸왕(桀王)의 친척 이면서도 물러나와 농사일에 몰두하였었다. 5) 선생은 비록 몸은 유악(帷幄) 6)에 있으면서 뜻을 경국제세(經國濟世)에 두었으나, 멀리 떠나가 있으려는 생각에 하루라도 구학(邱壑) 7)을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이란(理亂) 8)이 여러차례 뒤 바뀌져서 여러 간흉(姦凶)들이 기회(機會)를 엿보아 해괴(駭恠)한 일을 벌일 조짐이 날로 급박해짐에 탁월(卓越)한 식견(識見)과 밝은 지예(智睿)를 지닌 선생이 몸을 걸워 당장이라도 물러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임금께서 알아주심을 감격(感激)하여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돌아보시고, 저회(低徊)하면서 차마 결단(決斷)하지 못하다가 북문(北門)의 화(禍)가 9) 일어난 것이다.

선생께서 도의(道義)로 맺은 친우(親友)가 세 사람이 있는데, 음애(陰崖) 이공(李公) 10)과 일가 사람에 방은(方隱) 11)과 회곡(晦谷) 12) 형제 두분이다. 선생께서 휴양(休養)하실때 세 군자(君子)와 함께 사은정(四隱亭)에서 경서(經書)의 뜻을 강론(講論)하여 밝히면서, 서로 매우 즐거워하였다. 선생께서 화(禍)를 당한 뒤에 회곡공(晦谷公)이 힘써 선비들을 구하려다 또한 화(禍)를 입었으니, 슬픈 일이다.

-
- 4) 이윤(伊尹)~하였다; 이윤(伊尹)은 은(殷)나라의 어진 재상으로, 탕왕(湯王)을 도와 하(夏)의 걸왕(桀王)을 쳐서 천하를 평정하였다. 탕이 죽은 뒤 손자인 태갑(太甲)이 무도(無道)하였으므로, 동궁(桐宮)에 내친뒤 3년만에 그의 뉘우침을 보고 다시 제위(帝位)에 복귀시켰다.
 - 5) 주공(周公)은~하였다; 주공(周公)은 문왕(文王)의 아들로 숙부인 걸왕(桀王)의 폐정을 못마땅하게 여겨 물러나와 농사일에 몰두한바 있는데, 이를 말한다.
 - 6) 유악(帷幄); 정사(政事)를 계획하는 곳을 말함.
 - 7) 구학(邱壑); 故鄉를 말한다.
 - 8) 이란(理亂); 정치를 잘하여 잘다스려지거나, 그렇지 못하여 세상이 어지러워짐을 말한다.
 - 9) 음애(陰崖) 이공(李公); 이자(李紆)를 말함.
 - 10) 방은(方隱); 조광보(趙光輔)의 호.
 - 11) 회곡(晦谷); 조광좌(趙光佐)의 호.

숨어서 아래에 있는 것은 군자(君子)가 원(願)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아침에 현달(顯達)한 요직(要職)에 올랐다가, 저녁에 구덩이와 함정에 빠질 때에는 차라리 숨어서 살며, 몸을 보전(保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역(易)에 이르기를, “천지(天地)가 단합에 현인(賢人)이 숨는다” 하고, “세상(世上)을 도피(逃僻) 하였어도, 원망함이 없다” 하였으니, 선생으로 하여금 여유있게 살다가 천수(天壽)를 다 하여 은거(隱居)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화(禍)를 입어 죽어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바가 된 것이 어찌 기수(氣數)와 세운(世運)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선생께서 돌아가신지 이미 삼백여년이 지났고, 정자 역시 따라서 훼손되었다. 선생의 9세손 국인(國仁)이 세월이 지나감이 더욱 오래됨을 슬퍼하고, 옛 터가 영원히 없어짐을 안타깝게 여겨 세분의 자손과 의논하여 중창(重創)하도록 하였다. 정자가 이윅고 이루어짐에 범조(範祖)에게 기문(記文)을 부탁 하였다.

대개 나아가서는 임금과 백성들에게 은택(恩澤)을 베풀도록 세도(世道)를 변(變)하게 하며, 물러나서는 글을 읽고 학문을 강론해서, 즐거워하고 근심을 잊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는 다 선생의 뜻이었으나, 결국은 유한(遺恨)이 되었다. 선생의 자손(子孫)들은 덕(德)과 교화(教化)를 좇아, 집에서나 나라에서나 각각 그 의리(義理)를 다해서, 선생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름은 역시 선생께서 자손들에게 바라던 것이었으니, 이를 힘써야 할 것이다. 삼가 그 말을 기록하여 사은정(四隱亭)의 기(記)로 삼는다.

四 隱 亭 記

四隱亭者 文正公靜菴趙先生講道之所也 亭在駒城之治南 翠鳳寶蓋兩山中 有峭壁層層巖清川曲水之勝 亭名以四隱 耕於隱 採於隱 釣於隱 游於隱 先生之寓隱而樂者也 當中廟御極 則側席求賢 勵精圖治 有大有爲之志 而先生以直道正學 遭遇聖 辟訐謔日贊 以挽回三古爲己任 顧奚暇四隱之爲樂哉 自古聖賢出處顯晦 何常之有 亦隨時揭厲 適於義而已 故伊尹以阿衡之重 而告歸 周公以叔父之親 而明農 先生雖身處帷幄 志存經濟 而遐舉之想 未嘗一日忘邱壑 而況陰陽

迭消 理亂相乘 群奸傍伺 駁機之發 迫在朝夕 以先生卓識明智 豈不思奉身而退不俟終日 而感激主知 瞻顧宗祔 有低徊 未忍訣者 而北門之禍作矣 先生有道義友三人 陰崖李公 宗人方隱晦谷兄弟二公是已 先生休沐之暇 與三君子者 講明經旨 於四隱亭中 甚相樂也 先生既受禍 晦谷公以力救士流 亦及焉 悲 夫隱而在下 非君子之願 而與其朝躋顯要 夕陷坎穽 寧隱約以保身 故易曰 天地閉而賢人隱 又曰 遯世而無悶 使先生不得優遊卒歲 以遂隱居之樂 而興受禍敗 爲世所悲者 豈氣數世運使然歟 先生之卒 已歷三百有餘年 而亭亦隨廢 先生之九世孫國仁悲 年代之寢遠 悼先基之永墜 迺與三君子之子孫議 而重創之 亭既成 屬範祖爲記 夫 進而致澤君民 一變世道 退而讀書講學 樂而忘憂 是二者先生之志 而卒之有遺恨焉 爲先生之子孫者 率德尊教 在家在邦 各盡其義 以克成先生未卒之志者 蓋亦先生之有望於子孫者 勉之哉 謹書其語 爲四隱亭記

중수사은정기 (重修四隱亭記)

민 중 현 지음
홍 순 석 옮김

숨어 살면서 그 뜻을 구(求)하고, 의(義)를 행(行)해서 그 도(道)를 통달(通達)하는 것은, 곧 성인(聖人)이 출세(出世)와 처세(處世)를 논(論)한 것이다. 그러나 간혹 도(道)가 미처 행하여지지 않은 때에 액(厄)을 당하고, 몸이 아직 은거(隱居)하지 못하였는데, 화(禍)에 걸린 것은, 본조(本朝) 기묘 제현(己卯諸賢)들이 만난 바와 같은 것이니, 가히 일러 슬프다 할 것이다.

바야흐로 북문(北門)의 화(禍)가¹⁾ 일어났을 적에 제현(諸賢)들은 머리를 같이 해서 죽는데 나아가고, 간혹 요행(僥倖)히 면(免)함을 얻었다라도 또한 유리(流離)하고, 전패(顛沛)해서²⁾ 그 세상(世上)에 숨어버리기를, 마치 엄(嚴)한 서리가 한 번 내림에 모든 풀들이 번영(繁榮)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이 백성(百姓)으로 하여금 다시는 삼대(三代) 동안 성(盛)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들이 무궁(無窮)토록 한(恨)을 품었던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은 천운(天運)이다.

1) 북문(北門)의 화(禍);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가리킨다.

2) 전패(顛沛); 앞드러지고 자빠짐. 또는 좌절(挫折)함.

혹자(或者)는 “제현(諸賢)들의 명성이 너무 높고, 진취(進就)가 너무 이르고, 편 것이 너무 날카로우며, 능히 덕(德)만 쌓고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가 때를 기다려 나타나지 못한 것이 한(恨)스럽다.” 하나, 어찌 제공(諸公)의 어질고 슬기로우며 두루 미치지 못함이 있었겠는가.

내 음애(陰崖) 이 선생(李先生)께서 조 수재(趙秀才)에게 보낸 글을 읽어 보니, 진실로 제현(諸賢)의 뜻이 처음부터 은거(隱居) 하는데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거니와, 편지에 말하기를, “정암(靜菴) 조 선생(趙先生)과 방은(方隱)·회곡(晦谷) 형제와 음애공(陰崖公)이 도의(道義)로써 사귀어 맺어 서로 더불어 즐거워 하였고, 또 그 산소와 전원(田遠)이 가까운 곳으로서 한양(漢陽) 남쪽 용인(龍仁)에 터를 잡아서 정자(亭子)를 짓고, 이름하기를, 「사은(四隱)」이라 하였으니, 대개 농사짓고, 나무하고, 낚시질하고, 나물캐는 네 가지 즐거움의 뜻을 취(取)한 것이며, 늣도록 마칠 계책(計策)으로 삼고자 하였다.” 하는데, 역시 사현(四賢)이 함께 숨으려는 뜻이 나타나 있다. 얼마 안 있어 정암(靜菴), 회곡(晦谷)이 차례로 화(禍)를 당하고, 방은(方隱)도 세상을 마쳐 그 글월과 필찰(筆札)이 모두 전하지 않으며, 음애(陰崖)가 가장 뒤에 세상을 마쳤는데, 호서(湖西) 지방에 유리(流離)되어 있다가 고향 선산 곁에서 목숨을 마치지 못한 것이 임종(臨終)의 한(恨)이 되었다. 다만 그 글이 문집(文集) 속에 있는데 종유(從遊)하던 일을 서술하고, 존몰(存沒)을 생각함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

정자(亭子) 또한 그 사이에 폐(廢)해져 황폐해 졌다. 요즈음에 이르러서 제현(諸賢)의 후손(後孫)들로 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거둬 새롭게 하여 단청(丹青)으로 칠하고, 서재(書齋)를 창건(創建)하고, 승사(僧舍)를 두어서 이것을 보호하게 하였다. 공사(工事)가 이윽고 완료되고, 규모(規模)가 점점 갖추어지자, 나에게 그 일을 기록(記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생각컨데, 정암 선생(靜菴先生)은 정학(正學)으로써 군현(群賢)들을 일깨우시고, 음애(陰崖)는 덕망(德望)으로써 조야(朝野)에 귀중하게 여겨졌고, 회곡(晦谷)과 방은(方隱)은 정암(靜菴)과 사종(四從)이 되므로 매우 성대(盛大)하게 추대(推戴)되었다. 비록 나아가 당시에 크게 행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물러나서는 오히려 장차 이 도(道)를 강명(講明)해서 후세에 전했어야

할 것인데, 역운(厄運)과 천화(天禍)·인망(人亡)으로 그 친구들이 성(盛)하고 쇠(衰)하는 즈음에 아래 위로 오가는 것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아, 이 무슨 까닭인가.

대개 듣건데, 현인(賢人)의 교육은 아버이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데서 부터 시작하여 임금을 받들고 백성을 보호하는데서 마치며, 사우(師友)들이 강습(講習)으로써 이를 돕는다. 인의(仁義)로써 도학(道學)을 높이며, 화복(禍福)이 읍에 있어선 일찌기 간절하게 헤아린 적이 없다. 그러므로 꺾이고 패하여도 이름은 더욱 드높고, 인멸되고 막히더라도 도(道)는 더욱 나타나서, 집집마다 그 말을 전해 읍조리며, 그 가르침에 복종(服從)하므로, 천리(天理)가 밝아지고, 인심이 맑아지나니, 지난날 잠시 나아가서 의(義)를 행한 것은 그 공(功)과 교화(教化)의 응성함이 얼마나 하겠는가.

처음 방은(方隱)은 기묘년(己卯年) 이전에 은거하였고, 회곡(晦谷)은 우매(愚寐)하여 비록 정암(靜菴)이 조정(朝廷)에 있어서도 끝내 이르지 못하게 하여 화(禍)도 또한 미치지 않았으니, 가히 은자(隱者)라 말할 수 있다. 역(易)에 말하기를, “군자(君子)의 도(道)는 출세하거나, 은퇴하거나, 침묵하거나, 말하거나, 같은 마음의 말은 그 향취(香臭)가 난초(蘭草)와 같다.”라고 하였으나, 마음이 같은 자도 반드시 그 자취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방은(方隱)의 같지 않은 것으로서 제현(諸賢)들의 다른 바를 구한다면, 다른 것이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며,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제현(諸賢)의 도(道)를 구해 보고자 하면서, 그 자취로써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써 한다면, 사은(四隱)의 의리(義理)에 거의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정자는 용인의 치소(治所) 남쪽 두암(斗巖) 언덕에 있는데, 시냇물과 산이 좋은 곳이다. 음애(陰崖) 산소에 가기가 수리(數里)가 못되게 가깝고, 정암선생(靜菴先生)의 서원(書院)과 산소도 모두 이 고을에 있다. 정자를 중건(重建)함에 정암(靜菴)의 후손 국인(國仁), 음애(陰崖)의 후손 두연(斗演), 회곡(晦谷)의 후손 홍술(弘述)이 모두 그 일을 맡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홍술이 주장해서 일을 보살피, 그 역사(役事)를 마치었다. 뒤에 이 정자를 보는 사람은 또한 이 사람의 공(功)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重修四隱亭記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斯聖人之論出處也 然間有道未及行 而厄於時 身未及隱 而罹於禍 若本朝己卯諸賢所值 可謂悲 夫方北門禍作 一時諸賢駢首就戮 其或幸而得免 亦且流離顛沛 以沒其世 如嚴霜一下 百卉不榮 使斯民不復見三代之盛 而志士仁人齎恨於無窮 若是者天也 或者以諸賢名太高 進太早 發太銳 恨未能蓄德用晦 俟時而見 夫豈以諸公之賢而智 有所未周哉 余讀陰崖李先生與趙秀才書 固知諸賢之志 未始不在於隱也 書稱靜菴趙先生 方隱晦谷兄弟 暨陰崖公 爲道義契 相得歡甚 又以其邱墓田遠之相近也 卜築于漢南之龍仁 名其亭曰 四隱 蓋有取於耕薪釣樵四者之樂 爲終老計 而亦以見四賢偕隱之志 未幾靜菴晦谷 次第講禍 方隱下世 并其詞章筆札 翳然無傳 陰崖沒最後 而流寓湖縣 不克革命松楸 爲臨死恨 獨是書在集中 敘述遊從 感念存沒 覽者涕下 亭亦間廢鞠 爲荒草 至頃歲 諸賢後孫之居是邑者 相與出力 重新之 塗以丹雘 創書齋 置僧舍 以護焉 工役既完 規模漸備 仍屬余記其事 余惟 靜菴先生 以正學 倡群賢 陰崖 以德望重朝野 晦谷方隱於靜菴 爲四從 而見推甚盛 雖不克進 而大行於時 退猶將講明斯道 以傳諸後 而及備經厄運天禍人亡 卽其明儕盛垂之際 上下往復 無不可悲 嗚呼 茲曷故焉 蓋聞賢之爲教也 始於事親敬長 終於尊主庇民 輔之以師友講習仁義 是秉道學 是崇其於禍福之來 未嘗切切焉 計較 故推敗 而名蓋隆 煙燼而道蓋彰 家誦其言 戶服其訓 天理明 人心淑 則向之齎出 而行義者 其功化之盛 爲如何哉 始方隱在己卯前沈 晦谷愚 雖靜菴當朝 而卒不能致禍亦不及焉 可謂隱者也 易曰 君子之道 或出或處 或默或語 同心之言 其臭如蘭 心之同者 未必其迹 皆同也 以方隱之不同 而求諸賢之所以異 則異者 不必異 而同者 固自如也 後之人求觀諸賢之道 不以迹而以心 則其於四隱之義 庶幾有發焉 爾亭在龍仁治南 斗巖之上 有溪山之勝 去陰崖先墓 不數里 而近靜菴俎豆之享 若衣履之藏 俱在是縣 亭之重建也 靜菴後孫國仁 陰崖後孫斗演 晦谷後孫弘述 咸得其事 而其中弘述王張幹事 以終其役 後之觀斯亭者 亦知斯人之功也夫。

사랑의 코스모스

백암국민학교 6학년 1반
문 아 영

종례 시간때의 일이었다.

“자, 오늘은 꽃씨를 모아 가지고 내일 학교로 가지고 오세요.”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유, 시험 기간에 꽃씨가 뭐람. 내일까지 어떻게 꽃씨를 모으지.”

“꽃씨를 모으는 일 힘들어서 못하겠어.”

아이들은 제각기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 놓았다.

학교가 끝나자 마자 나와 내 동생은 비닐 봉지를 들고 개울 둑으로 갔다. 코스모스에는 씨가 아주 많이 맺어 있었다.

한참 동안 꽃씨를 따다 보니 어느새 비닐 봉지가 점점 채워져 갔다.

이젠 거의 다 됐다 생각하고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돌맹이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애써 모은 씨는 땅 바닥에 뽀뽀이 흩어졌다.

나는 아파서 또 서러워서 울면서 흩어진 씨를 줍고 있는데.

“쫓쫓, 아프겠지만. 애써 모은 씨도 떨어 졌고 ……”

하고 독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던 머리가 허연 할머니께서 혀를 차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분해 죽겠는데 할머니께서 무슨 상관이시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껍참고 있었다.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는 땅 바닥에 뽀뽀히 흩어진 꽃씨를 줍기 시작하셨다.

나는 할머니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꽃씨를 다 줘자 할머니께서는 내 등을 두드리시며

“이젠 다 주었으니까 그만 가 보렴 어머니께서 기다리시겠다.”

하고 자상한 말씨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고마와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마음씨 곱고 착한 사람들만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백암이다.

여러 운동 경기나 기술 경기에 나가면 상을 모조리 휩쓸어 온 곳도 바로 이 백암이다.

이렇게 살기 좋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도 부강해 지고 선진국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서로 합심하고 노력을 할 때 그 마을은 한 가족처럼 웃음과 행복이 떠나질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마을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나라 사랑이니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 고장을 위해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본다.

책상 위에 놓인 꽃씨 봉지를 가만히 만져본다.

꽃씨의 알알이에 따스한 할머니의 사랑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다.

아마 내년 가을에는 우리 백암에 사랑의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 우리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낼 것이다. ■

작은 애국에서

신갈중학교 2 학년 1 반

정 희 재

벼들도 고개숙여 농부들의 손에 의해 베어지고, 익은 과일도 따내어지는 과수원 주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모진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 더 맑고 파아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끈질기던 노사분규, 정치적 여러문제로 잠시 어지러웠던 사회현상은 이제 마무리져지고,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에 전력하게 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꽃봉오리를 맺게 된 것은, 과거의 쓰라린 고통의 밑바탕 위에 세워진 국난극복의 열매라 생각하여 본다. 발전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앞서 시련과 고난의 그 시기가 있었다. 그러기에 지금의 발전된 국가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본다.

지난 며칠전에 우리민족의 산 역사의 현장인 독립기념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진정 지난날의 이 땅위에 있었던 많은 시련의 비극 앞에 가슴 뭉클해 했다. 안이한 생활속에서 잊고 지내던 우리의 과거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과 함께 거룩한 죽음 앞에 목숨마저 아끼지 않으셨던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어왔다. “나라사랑의 길”하면 으레 크고 거창한 일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곳, 독립기념관에서 보았던, 농민, 노동자, 부녀자, 학생들의 그 대열을 돌이킬때 그 대열가운데에 피흘려 쓰러지는 어린학생의 모습속에서 나라사랑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 어린 학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인파속에서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의 꿈을 부르짖게 한 그 힘은 그 용기는 어디에서 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일까?

어린 학생의 가슴속깊이 파고 드는 조국애, 민족애가 아니고 무엇일까? 나라 없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을 이 어린 학생의 애국심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같은 핏줄로 이어진 대한민족으로서 그 어려운 시련의 당시를 상상해 볼 때 너무도 가슴 저며 오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벌레우는 이 가을밤에 나라의 소중함과 또, 나라사랑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나라잃은 설움을 맛본 민족으로서 국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민족으로서 더욱 뜨겁고 진실된 조국애로 민족이 하나 되어 각자의 맡은 직분에 충실함이 곧 나라사랑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직장에서 충실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기능이 완벽해지고 숙달됨에 따라 우리 대한 민족의 커다란 과업인 88올림픽도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히 헌법을 개정하고 또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있어서도 민주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이행하여 민주국민의 기질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국민이 맡은 일에 충실하고 서로 협동하여 단결한다면 88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게 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것이 곧 나라사랑의 길이 될 것이며 이어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역사의 장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안이한 생활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 지도 모르는 국가의 소중함과 뜨거운 민족애를 다시금 가슴속에 부활의 의지를 심어 품어보고 작은 일에도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줄 알아야겠다. 그러한 가운데 국가는 더욱 발전된 미래의 현실을 보게 될 것이고, 국민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지게 되리라. 가끔씩 느끼게 되는, 대한민국의 대 자연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신 조물주의 고매하신 뜻에 감사를 드려 보기도 한다.■

힘든 생활의 보람

송전농업고등학교 2 학년원예과
한 현 미

가을이 찾아오면 추운 겨울을 걱정하고 미리 생활의 점검을 하게되고 건강을 돌볼 준비를 한다. 나에게 있어서도 겨울은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것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힘들고 고생스럽던 나의 체험을 써본다. 정말로 아름다운 내 마음, 정말 깨끗하였던 정신을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떠나 또다시 내가 그런일을 할수있을까? 하는 의문의 열쇠를 가지고 쓰라린 몇해전의 기록을 자세히 사실대로 써간다.

태어나서 부터 농군의 딸로 살았고 가난한 농군의 힘이었다고 꿈이었던 나는 첫딸이라는 사명아래 꽤 고집도 세고 지독한 아이로 자란것 같다. 내가 국민학교 5 학년때의 일이다. 아버지는 머리가 길었던 나를 빗질을 하시면서 예쁘게 따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를 찾곤 하셨는데 그때는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택에 들어가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뚜렷한 이유는 잘 몰라도 아버지와 대단한 싸움이 있었기에 1년이 넘어도 집에 오시지 않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치우고 하였고 이따금씩 동네 어른들은 나를 불쌍한 눈초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엄마가 오실때까지 고생스럽지만 너가 해야지 어떡해 하니 하면서 위로아닌 동정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생활속에서 난 절대로 울지않고 나쁜짓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자신과 약속을 하였다. 이런 생활을 하다 지칠대로 지친 나를 무엇인가가 더 큰 구렁이속으로 집어 던졌다. 술을 못드시는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들어오시는 날들이 하루가 가면 갈수록 횡수를 더해갔고 술주정을 나에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동생들에게 까지 주정을 하시고 못살게 구박을 하였다. 자꾸만 그러시는 아버지가 싫었지만 엄

마대신 나라는 생각에 꼭 참고 견디었다. 동생들은 의례 아버지가 술이 취해 들어오시면 놀러가든 지 방안에 숨어 있었다. 드디어 악마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고 입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돈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월급탈때 밖에는 없기에 입원하시지 못하고 집에서 두리눅게 할수밖에 없었다. 농사를 짓는 우리 집에는 저녁에 박스끼우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프다보니 그일마저 하지 못하니 돈이라는 것은 정말 보기조차 힘들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별로 아파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헛소리를 하시고 귀신한테 홀린 사람처럼 맨발로 소리를 치며 방을 뛰쳐 나가셨다.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간 아버지를 쫓아 난 캄캄한 밤길을 소리 없이 울면서 아버지를 목이 메어 불러보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동생들도 울면서 나를 따라 나왔다. 그런 동생들이 난 한없이 불쌍했다. 동생들을 보내고 난뒤에 난 또 아버지를 찾아 헤메야 했다.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바로 내 앞에서 앉아있을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맨발로 나가신 아버지를 등에 업고 힘겹게 집에 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이런 아버지를 두고 학교에 갈수 없기에 아버지를 방안에 넣고 못을 박을까 하고 생각도 했지만 차마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4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막 뛰어왔다. 집에와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난 또 찾아다녀야 했다. 그날도 난 학교에서 4시간이 끝나고 내가 제일 먼저 집에와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아무데도 없었다. 나중에는 내가 신장로로 나오니 아버지가 차들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앉아계셨다. 나는 왜 아버지가 그곳에 앉아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것같다. 내가 가장 서럽고 억울했던것은 동생이 밖에서 싸움을 하여서 나갔더니 동생이 맞고 있어서 내가 그애를 두들겨 패는데 조그만 녀석이 집에가서 일렀다. 분명 내가 잘못된것을 알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동생말을 들어보니 절대로 동생이 잘못된것이 아니였다. 그런데 아줌마가 저녁에 우리집에 오더니 동생을 구박하고 나를 구박하는 것이다. 그때 난 우리가 뭘 잘못했냐며 대들고 나중에는 그 아줌마가 욕을하여서 내가 지고말았다. 그때가 가장 서럽고 잊혀지지 않는 없는 설움을 맛보았다. 그때 난 이렇게 말했다. 커서 두고보자고... 그것이 나를 지독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했다. 한계절이 바뀌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프셨지만 정신은 바르게 되었다. 정신이 바르게 되었지만 또 소변과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단 한발짝도 걷지를 못하셨다. 아버지가 대변과 소변을

가리지 못하니 가끔은 옷도 땀과 오줌으로 번박이 되었지만 누구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내손으로 닦았다. 아빠는 그런 나를 지켜보시고 우신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때 부터 나의 꿈은 간호원이 되었고 아버지 처럼 아프신 사람들을 돈 받지않고 치료해주겠다고 생각 하였다. 새벽에 일어나서 얼음이 푹푹 얼어붙은 개울에 빨래감을 가지고 가서 돌로 얼음을 깨뜨려 가며 빨래를 했다. 손이 시러워서 울면서 빨래를 해야만 하였던 겨울, 빨래를 하고 와서 군불을 지피고 불을 또 때서 밥을 하였고 불이 타지 않으면 눈물이 연기로 인해 저절로 흘렀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다.

“하느님” 이제는 그만 엄마를 아빠에게 보내 주세요” 이제 그만 아빠의 병을 가지고 가세요. 그대신 제가 엄마, 아빠 곁을 떠나고 제가 아프면 되잖아요.

“하느님” 오늘은 꼭 엄마가 집에 오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실컷 울어 본적도 있다. 매일같이 같은 일들을 말없이 해온 내가 어딘지 모르게 아픈 것이었다. 감기 기운이 있었는지 머리가 무척 아팠지만 약하나 먹지 못했고 아프다는 소리 한번 하지 못한채 아침밥을 할때 도저히 버틸수 없는 상황에도 지금 내가 쓰러지면 아버지와 동생은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그렇게 아팠던 몸도 저절로 낳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였던 그날처럼 난 또 기도를 하였다. “하느님” 이제 하나님을 찾지않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착한 아빠의 병도 가져가시지 않고 엄마도 제게 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느님을 찾아서 무엇을 하겠어요.하고 기도를 끝내고 학교갈 준비를 하였다. 아버지가 오늘은 이상하게 날짜를 물어 보신다고 생각을 하였다. 학교에 가기 전에 열번이 넘게 큰글씨는 몇일이고 작은글씨는 몇일이나고 물어 보시기에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학교에 왔다. 동생과 함께 학교 가는길은 재밌고 즐거웠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날은 늦게 집에 보내주어서 저녁 늦게 집에 갔는데 집이 깨끗해 저서 놀랐다. 그런데 엄마가 방에서 문을 여시고는 나를 보고 계셨다.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울고만 있었다. 따뜻한 엄마의 손이 나를 감싸고 난 엄마의 젖가슴에 묻혀 엄마가 없던 생활속의 서러움을 눈물로 다해보진 다 받아보진 못한 사랑을 하였다. 그 다음날이 동생 생일이였다. 그동안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집에 돌아왔고 나도 엄마 없는 고생을 겪으면서 무척많이 혼자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나는 겨울을 보낸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겨울은 치명적인 것이다. 그리고 과거가 빠져린 사무침으로 남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효녀도 아니요 착한 누이도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남보다 더 착한 딸이고 좋은 누이였다고 자신 할수 있을것 같다. 지금 지나간 과거가 온다면 과연 난 어떻게 할까? 문제소녀가 될까. 아니다. 절대로 문제의 소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처럼 깨끗한 정신이 아닐지라도 싸움은 할수있다. 비록 천사같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

< 31 page에서 계속 >

⑤ 큰 짐은 식당에 갖고 들어가지 말고 클럭에 맡기고 입장한다.

⑥ 식당 좌석은 웨이터가 권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앉지 말 것).

● 큰 소리로 어이 이봐?

① 식당에서는 큰 소리로 웨이터를 부르면 실례.

② 눈이 웨이터와 마주 쳤을 때까지 기다리되 강한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신호를 한다.

③ 식사가 늦게 나온다고 재촉은 금물, 급해도 참았다가, 일본은 주문 후 20분, 미국은 30분, 유럽은 50분이 지나면 지배인을 불러 불쾌하지 않도록 얘기를. 역시 웃음을 잃지말고

● 식사는 천천히 즐겨가며

① 식사는 천천히 대화를 즐기면서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펍 여유있어 보인다. 요리가 나오기가 무섭게 후다닥 먹어 치우는 습관은 굵주렸을 때의 경우.

② 너무 즐거워 지나치게 웃거나 큰 소리로 흥분해 떠든다면 옆 사람의 식사 방해가.

● 양손은 언제나 테이블 위에

① 식사 중의 양손은 언제나 테이블 위에

놓는다.

② 나이프나 내프킨 등이 떨어졌을 때는 본인이 줌지 말고 웨이터에게 부탁을.

③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지 말고 내프킨 안쪽을 사용하되 땀, 콧물, 입술연지, 과일즙, 기름기 등은 닦지 말도록.

● 내프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

내프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 식사가 끝났음을 의미하므로 내프킨을 잘못 놓아, 먹고 싶은 음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식사가 끝났을 때는 내프킨을 구겨진 채로 테이블 위에 놓는다.

● 포크와 나이프를 잘못 놓으면

① 식사 중에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뜰 때, 포크와 나이프를 잘못 놓으면 굵게 되니 주의하시길... 아직 식사 중이라면 양쪽으로 걸쳐 놓을 것.

② 식사가 끝났을 땐 먹다 남은 음식은 시계바늘 1시 방향으로 놓고 포크와 나이프는 접시 중앙에 가지런히 놓는다. 이때 포크가 앞에, 나이프가 뒤에 놓이게 하는데 칼날이 포크와 닿지 않도록 놓아야 한다.

< 다음 호에 계속 >

우리집의 저금통

용인국민학교 6학년 5반
홍 설 하

우리집은 저금통이 참 많다. 아빠, 엄마와 나 그리고, 내동생들이 모두 다 한개씩 갖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우리들의 돼지 저금통이다. 그런데, 제각기 성격이 달라서 인지 저금하는 방법과 저금한 액수가 모두 달랐다.

먼저 아빠는 돈을 모으는 저금통장이 아니라 돈을 버는 저금통장이다. 왜냐면 아빠는 공무원 이셔서 월급이 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저금통장이 두둑할줄 알았는데, 며칠전 통장을 보니 3500원 밖에 안 되었다. 참으로 깜짝 놀랄만한 일 이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깐 그냥 웃기만 하셨다.

‘ 설마 그럴리가. ’

라고 생각하셨나? 아니면,

‘ 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

라고 말씀 하실건가? 참 궁금했었다.

그렇지만 그 궁금증은 며칠 후 속 시원히 풀렸다. 해답은 바로 엄마의 저금통장에 들어 있었다. 엄마가

“ 아빠는 돈을 잘 쓰셔서 그대로 두면 다 써버리신다. 그래서, 엄마의 저금통장을 장만 해서 아빠의 월급이 나오는대로 꺼내어 엄마의 통장으로 옮겨 넣었다. ”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엄마의 생각에 찬성과 동의의 뜻을 보였다.

다음은 나의 여동생 경하의 저금통장이다. 우리들은 아직 국민학생인 우리는 학교에 저금통장이 있다. 그런데, 경하는 막내동생인 성호보다 저금액수

가 적어서 좀 많이 하라고 했다. 그러자, 엄마가 그러시는데

“경하는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지.

돈을 똑같이 주어도 금방 사먹고, 저금도 안하려고 하지. 또 금요일 저금 날도 잊어버리지.”

라고 말씀 하셨다. 왜 경하는 똥똥할까?의 이유를 지금 알게 되었다. 또, 경하의 저금통이 왜 채 5만원도 안되나?하고 생각 했더니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또 엄마는

“경하와 성호는 너희들 언니같이 학용품좀 써봐라. 왜 그렇게 혼히쓰니? 좀 아껴쓸줄좀 알아라.”

라고 자주 꾸중 하신다. 그래서, 내가 경하와 성호가 쓰다남긴 공책을 모아서 묶어 보았다. 그랬더니 100장도 넘었다. 참 신기했다. 그일에 깜짝 놀라서인지 경하는 이젠 저금통이 나보다 더 묵직해졌다.

나도 맨 처음엔 저금 이란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질 않았는데,저축의 필요성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참 절실한 생활방법 이란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저번에 할머니댁에 갈때 10 원이 모자라서 과자를 못 사먹은 적도 있었다. 그때 얼마나 10 원이 귀중한가를 알게 되었고, 10 원이 없으면 더 많은 90 원이 있어도 100 원이 안돼고 손톱없는 손가락이란것도 알게 되었다.

“설하는 엄마보다 부자네?.”

엄마가 늘 내게 하는 말씀 이시다. 저번 여름방학때 부터 자린고비처럼 모은 돈이 10000 원도 넘었기 때문이다. 경하가 저금을 시작한 이유에 나의 절약 정신도 끼여 있었다. 특히 음악공책을 4 년간 쓰고, 지우개도 물건살때 덤으로 준것을 모아서 10 개가 넘는다는 것이 경하의 절약정신을 싹트게한 밑거름 이었나 보다. 하지만 나도 배운점은 많았다. 그중에 제일은 「저축」이었다.

“저축이란 내일의 나를 위하여, 미래의 나를 위하기도 하지. 내일 어떤 급한 돈쓸 일 이라도 생기면 쓰고, 미래에 내가 학비를 장만해 보겠다하면 어릴때 열심히 저축해 뒤도 좋고, 정말로 절실한 생활방법 이란다.”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나의 좌우명인

‘저축하는 생활,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자’를 잘 지켜서 연필 한 자루, 종이 한장, 10 원 하나라도 아껴쓰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굳게굳게 다짐했다.

근 검 절 약

용인여고 2학년 6반
김 세 미

며칠 전 우리는 TV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풋말 아래 주인 잃은 물건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것을… 우리의 생활에 쓰이는 생활 용품은 무한정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고 전인류가 바짝 긴장을 하거나 겁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소비자들은 점점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나라만은 아니다. 얼마 전 유럽의 어느 은행에서 클립 10만개의 행방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클립이란 모두 알다시피 종이나 서류를 끼울 때 사용되는 구부러진 철사로 만든 도구를 의미한다. 은행장은 은행원들의 몰자 절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실시했다. 이윽고, 클립 10만개의 행방을 조사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뜻밖이었다. 은행원들의 카드 놀이에 현금 대신 사용된 클립이 2만개, 와이셔츠의 떨어진 단추나 호크 대신 사용한 것이 만개, 짐으로 가져간 것이 만 오천개였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용으로 사용된 클립은 겨우 만 이천개에 불과하였다. 전체의 12%만이 제대로 사용되고 88%가 엉뚱한 곳에 낭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버리는 하찮은 물건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상당한 절약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절약, 저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부호 집안 케네디가의 폐품 활용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의 부인은 길에서 버서진 소형 냉장고를 주어와 서류 상자로 썼다고 한다. 뉴튼은 쓸모 없어진 재산 문서 뒷장을 활용하여 저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

났다. 루즈벨트 역시 신문에 끼여 들어오는 광고지 뒷장을 오려 메모지로 썼다. 육당 최 남선이 3·1독립 선언서의 초안문을 신문에 끼여든 종이의 뒷장에 썼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경주 최부자’로 유명한 최준은 12대째 만석꾼으로 내려오는 부장중의 부자였다. 그러나, 그 집안은 검소, 절약을 숭상수범했다. 최준의 할머니는 만석꾼의 내당 마님이었으나 떨어진 옷을 너무 기워 입었기 때문에 옷 한 벌의 빨래를 삶으려면 큰 가마솥이 가득했다고 한다. 생선도 저녁 늦게 가서 싼 것을 사오도록 했고, 쌀 뒷박에 표시를 해서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사람 몫에서 한 숟가락씩을 아껴 뒤에 쓰도록 했다. 사과도 깎지 않고 통째로 먹게 했다. 후에 그는 독립 운동 자금을 냈고, 회사와 학교를 세웠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빈민을 돕고 손님을 후대했다. 그는 나중에 재산을 다 잃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재산이 없으니 이렇게 흥분한 것을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러나 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절약과 저축으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생의 기록 속에는 그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절약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빛의 구실을 한다.

70년대 우리에게겐 소비의 미덕이라는 말이 있었던 적도 있다. 생각해보면 이는 약간의 풍요로움에서 온 만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교복 자율화가 실시되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는 사치와 허영 의식이 나돌게 되었다. 자율화로 인하여 호기심이 얽힌 충동 구매 선풍이 일어 고가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으며 이에 자극을 받은 각계 업체는 외국 상표를 도입, 시장에 진출했다. 신발만 해도 아식스, 아디다스, 나이키 등의 고가 제품이 허다하다. 또한 이들의 판촉 선전 공세는 국민 학교에서 어린이 신발 도둑이 생길 정도로 신발 수요를 급격히 고급화, 사회 문제를 빚기도 했다. 언젠가 외제 상표 제품이 국내 상표보다 나은 점도 없고 일부 고가품은 대중품보다 오히려 품질이 못하다는 것을 신문 지상에서 읽은 적이 있다. 이는 외제 상표로 소비자를 사로잡는 상흔 탓도 있지만 외제 상표 고가품이면 무작정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합리적인 구매 행위가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근검 절약하는 생활의 첩경이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외국의 경우를 살펴 보자. 영국인들은

관광 여행을 할 경우 자신들의 음식을 준비해 가는 등 최대한도로 경비를 절감한다고 한다. 또,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쓸모 없어진 옷이나 책 따위를 이웃집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또 받는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TV에서도 방영된 바 있지만 일본의 전국 은행 조합장은 큰 집이 아닌 17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쓸데없는 외제 물건을 못 가져 올 만큼 사서 가져오느라고 고생하고 또 쓰던 물건을 주는 것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국민 소득은 이제 3천불 정도인데도 국민들은 너무도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도 절약을 더 해야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절약 생활은 우리의 기본 생활 습관으로 굳혀져야 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 사회가 발전해야만 하고 또 그 가정 그 개인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일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입장에서 보건대 개개인의 절약 습관이 얼마나 국가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기서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에 현혹되지 않고 유행에도 민감하지 않으며 다수의 대세에도 쉽사리 굴복하지 않는 그런 근검 절약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근검, 절약하는 생활, 그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매일의 성실한 삶과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노력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

경기은행 개점식

경기은행은 12월 8일 용인읍 김량장리에서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李尙鎬행장을 비롯 각급기관사회단체장,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은행 창립 18주년기념식에서 장기근속자로 15년이상근속한 朴俊緒 검사부장등 24명과 10년이상 근속자로 宋相鳳부천 지점장등 117명과 부평지점 金建秀차장등 47명을 각각 표창했다.

다목적 교실 기공식

용인군 교육청은 지난 87년 11월 5일 하오 14시에 용인군 포곡면 포곡국민학교 현장에서 건평 220평 (726㎡)에 철근콘크리트 아취형 지붕으로서 오는 88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각급 기관장 및 주민다수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교실 건립 기공식을 성대히 거행 하였다.

남사남곡~봉무리간 포장

남사남곡~봉무리간 도로 확포장 기공식이 10월 19일 박계민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주민등 다수 참석한 가운데 면소재지인 봉무소도읍 가꾸기 사업기공식을 가졌다.



용인군내에서 유일한 상주인구가 줄어드는등 가장 낙후 지역이었던 남사면 인원이 본격적으로 남사 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용인 - 백암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기공식

용인 - 백암간 도로 확장포장기공식이 12월 9일 박계민 군수, 서영호 경찰서장 각급기관 사회단체장, 주민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도로포장(용인 - 백암) 되는곳은 용인군내에서 가장 오지인 이노선 주변은 그동안 관통도로가 비포장길이어서 장마철과 겨울철에는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통행이 중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등 지역개발이 늦춰져 온 곳이다.

용인읍내에서 외사면 백암 및 원삼 방면을 가려면 양지선을 이용하여야 했으나 이번 용인 - 백암도로확장포장공사를 함으로써 불편하던것이 해소되는 등 일대의 발전과 함께 양지도심의 교통체증현상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원소방서 용인소방파출소 개소식

용인읍 소방파출소 개소식이 11월 26일 하오 15시 용인읍 사무소 광장에서 박계민군수, 수원소방서장, 교육장, 군농협장, 각급기관사회

단체장, 소방공무원, 의소 대원, 주민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5백 50㎡ 부지위에 4백 12㎡ 규모의 청사로 문을연 이 파출소는 직원 13명에 펌프차 4대(대·소형 각 2대)와 구급차, 통신시설등을 갖추고 용인 읍내 소방업무를 전담케 됐다.

한국 전력 공사 용인지점 개점식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지점장 鄭秉烈) 개점식이 12월 9일 하오 14시에 박계민 군수, 서영호 경찰서장등 각급기관장, 사회 단체장, 임직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용암 로타리 클럽 창립 총회

지난 1987년 11월 17일 용암 로타리 클럽 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국제로타리 375 지구 김찬목 총재 조중익 국회의원 관내 기관

장, 지방유지, 로타리 회원, 군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사에서 로타리 홍재구 회장은 인도적인 봉사에 힘쓰고 모든 직업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켜 나가도록 장려하고 나아가서 온 세계에 친선과 평화의 확립을 힘쓰는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이 세계적으로 결합한 단체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1 진실한가? 2 모두에게 공평한가? 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4 모두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며 로타리 강령을 몸소 새기며 이행하는 회원이 되기를 다짐 하였다.

이날 기념식전에는 효자 포곡면 유운리 이진수씨와 효부 용인읍 삼가리 이양순씨에게 표창과 부상이 있었으며 김찬묵 총재님 방현 장학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용암 홍재구회장 용인 김재식회장에게 감사패 증정과 지구 중심사업인 장학 사업을 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봉사인 기금 4,800,000 원과 홍재구회장 유건석차기 회장이 국제장학기금 (Paul Harris Fellow 1,616,000)을 김창묵 총재와 방현 장학문화재단 이사에게 전달 하였다.

용암로타리 클럽 회원 명단

직	성명	주 소	사 업	전화번호
회 장	홍재구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 117	홍 재 농 장	2-2143
부 회 장	유건석	" " 김량장리 345-25	꽃 마 을 건 설	2-2550
이 사	홍순홍	" " 역북리 434-26	서주우유대리점	32-0340
"	금병성	" " 김량장리 98	보 옥 당	2-2374
"	김명균	" " 김량장리 133-203	용 한 약 국	2-3666
총 무	양희만	" " 김량장리 131-14	반 도 사 진 관	2-2741
재 무	김종명	" " 김량장리 418-9	새 마 을 슈 퍼	2-2891
사 찰	최종웅	" " 김량장리 142-22	복 다 방	2-2908
클럽봉사의원장	김종학	" " 김량장리 374	문 화 라 사	2-2333
위 원	이명우	" " 김량장리 254	우 아 미 가 구	2-4507
"	이홍주	" " 김량장리 133-62	이소아과의원	2-5944
"	최양식	" " 김량장리 155	김 종 보	2-6150
사회봉사위원장	최운영	용인군용인읍삼가리 193	변 호 사 사무장 능 안 갈 비	2-3670

위 원	박호열	" "	김량장리청한상가 (B507)	제 흥 상 회	2-5068
"	유호영	" "	역북리 481-28	화 신 보 세	2-2742
"	김희배	" "	김량장리 254-119	을 지 문 예	2-4836
직업봉사 위 원 장	조성훈	" "	김량장리 114	용 인 체 육 사	2-2562
위 원	한홍수	" "	김량장리 254-33	88 수 퍼	2-3568
"	최종식	" "	김량장리 93	광 명 당 안 경 원	2-2881
"	우진석	" "	김량장리 133-193	대 청 공 업 사	2-3146
국제봉사 위 원 장	권영환	" "	김량장리 294-10	건 축	2-5584
위 원	이진수	"	포곡면유운리 247	한 진 농 원	32-5629
"	김문옥	"	용인읍김량장리 145-1	충 우 부 동 산	32-1728
"	이중훈	"	용인읍김량장리 254-3	현 대 자 동 차 보 협	2-2204

제 4 회 근묵회 서예전

용인 문화원 전시실에서 11월 19~22일까지 열렸다.

○ 각종 공모전에 입상 작품도 출품되어 수준높은 전시회로 평가받은 이번 전시회는 회원중에 김 주익씨가 용인군에서 서실을 운영하면서 예술의 불모지라 부르는 용인의 후학들을 위해 정법서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시회를 후원하고 정법 서예의 길 이라는 책자를 정리하여 관람자에게 배부해 주었다.

또한 국전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신 경암 김 상필씨와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 지부장, 문화원장, 우체국장등 여러 기관장들께서 참가하시어 용인군의 문화발전에 숭선수범하는 계기도 됐고 경암 김 상필씨는 군단위에서 모처럼 좋은 작품의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은 지방의 서예에도 저변확대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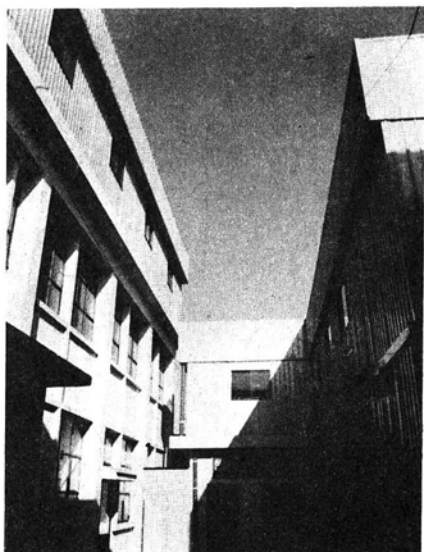
근묵 회원들에게 초보자는 법필로서 서예에 입문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젊은 회원들이 앞장서서 일깨워 주는 것이 여러 회원들의 책임이라 하시며 용인 지역에 오신것을 기쁘게 생각하셨다.



이날 출품회원은 지우-공영옥, 낙원-신정란, 지산-김영만, 인곡-이기주
 동산-김주익 신계-유지복, 가원-박옥임, 연당-진계숙, 우향-박승숙, 한
 뫼-문홍식, 찬조작품=근당-양택동

용인 문화원 증축

군민의 문화 인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방 문화의 저변 확대와 문화시설이 날로 요청됨에 따라 금번 문화원 시설을 확장하여 군민이 널리 이용토록 하고저 건평 114 평 규모로 (87년 12월 24일 준공) 증축 및 기존 건물을 개수하였다.



“ 87 종합 시상식 ”

본 문화원이 주최한 제 6 회 미술 공모전, 제 2 회 청소년 백일장 공모 종합 시상식을 1987 년 12 월 8 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해당 학교 지도교사, 학부모 시상대상자 18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하였다. 이날 부문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문별 시상대상자

시행일자	공모전	대상	시상구분	성명	학년	소속	비고		
1987 10월 31일	“ 제 6 회 미술작품 공모	유 치 부	금상	김은경		남곡국민학교			
			은상	박명숙 신애란		양지국민학교 기흥국민학교			
			동상	안정철 박인용 임미현 이종옥		양지국민학교 용인국민학교 기흥국민학교 능원국민학교			
			초	금상	이선영 조준희 이상이	1 4 5	수지국민학교 보라국민학교 구성국민학교		
				등 부	은상	강두식	1	수지국민학교	
						이성미	2	백암국민학교	
		임현애	2			서릉국민학교			
		서강윤	3			보라국민학교			
		김현실	3			보라국민학교			
		김성희	4			보라국민학교			
		부	은상	정민호	5	모현국민학교			
				김지연	5	용인국민학교			

시 행 일 자	공 모 전	대 상	시 상 구 분	성 명	학 년	소 속	비 고
1987 10월 31일	“제6회 미술작품 공모	초 등	동상	장호진	2	서룡국민학교	
			동상	이혜원	2	고기국민학교	
			동상	이다영	1	구성국민학교	
			동상	이현정	2	수지국민학교	
			동상	윤여국	1	신갈국민학교	
			동상	최민정	1	보라국민학교	
			동상	이상협	3	백암국민학교	
			동상	박지연	4	보라국민학교	
			동상	김준호	3	양지국민학교	
			동상	신옥희	4	용인국민학교	
			동상	송수정	4	보라국민학교	
			동상	선주현	3	보라국민학교	
			동상	정은미	6	백암국민학교	
			동상	김지구	6	구성국민학교	
			동상	김자영	6	용인국민학교	
		동상	우영승	6	용천국민학교		
		동상	조현주	5	구성국민학교		
		중 등 부	금상	이종호	3	태성중학교	
			은상	유권섭	3	태성중학교	
			동상	나광일	2	태성중학교	
동상	김용선		3	태성중학교			
고등부	금상	이지호	3	태성고등학교			
1987 10월 31일	“제2회 청소년백일장 공모	초	최우수	문아영	6	백암국민학교	
			우수	윤정희	5	장평국민학교	
			우수	장미진	6	서룡국민학교	
		등 부	우수	안지혜	4	남사국민학교	
			가작	강석이	5	송전국민학교	
			“	박보혜	5	백봉국민학교	
			“	안숙진	3	장평국민학교	

시행 일자	공 모 전	대상	시 상 구 분	성 명	학 년	소 속	비 고
1987	“ 제 2 회	초 등 부	가 작	정현민	4	서룡국민학교	
			”	황규찬	6	백봉국민학교	
10 월	청 소 년	중 등 부	최우수	정희자	2	신갈중 학교	
			우 수	박성준	2	남 사 중 학 교	
31 일	백 일 장 공 모	부	우 수	권미경	2	신갈중 학교	
			가 작	안진순	3	원삼중 학교	
고 등 부			가 작	이상임	2	백암중 학교	
			가 작	마홍임	1	신갈중 학교	
			최우수	한현미	2	송전농업고등학교	
			우 수	양혜영	2	용인상업고등학교	
			가 작	신동옥	1	백암종합고등학교	

龍丘文化에 글을 기다립니다

本文化院에서 季刊誌로 發行되는 「龍丘文化」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 要領에 의거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民俗, 文化祭等 발굴기
2. 愛鄉心 고취에 관한 산문
3. 鄉土文化 暢達을 위한 논문
4. 각 기관 및 學校, 一般社會團體等에 동정消息等
5. 他鄉生活手記, 내가 보는 龍仁像, 龍仁發展을 爲한 提言
6. 文藝, 詩, 時調, 수필, 콩트 龍仁에 關한 사진等 資料
7. 可級的이면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되 枚數는 제한없음

보내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용구문화 편집실 (전화) 2-2033

87년도 용인문화원 사업실적

시행일	사업내용	대상	비고
3/31	용구 문화지 발간 (제 10호)	1,200부 발간	
5/29	영지회 꽃꽂이 전시회	일 반	
6/11	서예전시회	일 반	용문서예
6/30	용구 문화지 발간 (제 11호)	1,200부 발간	
9/ 5	제 4회 초, 중, 고 영어 말하기대회 영어 암송 대회	초, 중, 고등부	
9/19	제 4회 초, 중 피아노 경연대회	초, 중등부	
9/29	제 2회 용구 문화제 (군민의날과 병행 실시)	일 반	
10/16	제 2회 청소년 백일장 공모	초, 중, 고등부	
10/16	제 6회 미술 작품 공모	유치원, 초, 중, 고등부	
10/21	미술 전시회	학생, 일반	태성중, 고교
10/23	제 3회 효도 관광	용인 관내 할아버지	
10/30	용구 문화지 발간 (제 12호)	1,200부 발간	
11/19	서예 전시회	일 반	근목회
11/19	청소년 문화 강좌	각 중학교	
11/24	청소년 문화 강좌	각 중학교	
12/18	종합 시상식 개최	유치부, 초, 중, 고등부	
12/24	문화원 증축 및 기존건물 보수	114 평	

민영환(閔泳煥) 초상

민영환은 철종 12년(1861) 7월 25일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인 겸호(謙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후 큰아버지인 여성 부원군(驪城府院君) 태호(泰鎬)에게 입양되었다.

그가 태어난 날은 고종 황제의 탄신일이기도 한데 민영환은 성장한 이후 일부러 하루를 늦춰 생일을 지냈다 한다. 이는 고종황제와는 내외종간이며 민비(閔妃)의 조카가 된다.

어려서부터 한문서숙(漢文書塾)에서 수학한 그는 17세가 되던 1877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급제 1881년에는 당상관인 동부승지(同副承旨)로 1882년에는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라는 최고의 명예직까지 이르렀다.

1887년 친군전영사(親軍前營使)를 거쳐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한성부 판윤 등 수많은 중요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이 같은 관직은 모두 그가 30세의 젊은 나이에 지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日本은 11월 17일에 외교권을 박탈하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相條約) 즉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였다. 이때 민영환은 의정 대신 조병세(趙秉世)와 여러 대신을 이끌고 궁궐에 나가 이를 반대하였으나 日本헌병들의 강제해산으로 실패하였다. 다시 종로의 백목전도가(白木廳都家)에 소청(疏廳)을 열고 상소를 올렸으나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미 대세가 기울고 자신의 뜻을 펴수 없음을 느낀 민영환은 전동(典洞)에 있는 이완식(李完植)의 집에가서 2천만 동포에게 독립의 뜻을 알리는 내용의 유서와 우리동포의 앞날을 부탁하고 일제의 침략적 만행을 규탄해달라는 내용의 주한 외국 사절에게 보내는 유서 2통을 남기고 11월 30일 자결하였다. 그해 나이는 45세였다.

민영환의 유해는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 봉분없이 평장되었다가 1942년 후손들에 의해서 현재에 위치인 구성면 마북리 구성국교 뒷산으로 옮겨졌다.

1906년 7월 그가 죽은후 유물을 묻었던 곳에서 네줄기의 대나무가 나왔다고 하며 이를 혈죽(血竹)이라고 부르고 있다.

훗날 그의 위국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의정대신(議政大臣)에 추종하고 고종황제의 묘정(廟庭)에 배향케 하였으며 충정공(忠正公)이라는 시호를 내려 주었다. ■

편집후기

- ◎ 多事多難 했던 丁卯年 한해도 저물고 希望에찬 戊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1年間 本院「龍丘文化誌」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과 바쁘신중에도 玉稿를 주신 여러先生님, 本院發展을 위하여 協助하여주신 모든분들께 깊은感謝를 드립니다.
- ◎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보다 나아 지리라고 希望을 걸고 살듯이 本院에 未備한 點을 補完할 수 있도록 계속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이번「龍丘文化」第13號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 ◎ 이번號에는 明知大學校 申千湜教授의 「竜仁漫筆」과 特輯으로 湖巖美術館 金載悅 研究室長의 「우리나라 美術의 特徵(Ⅱ)」을 紹介하였다.
- ◎ 새해에도 地方文化 暢達의 일환으로 本誌를 爲하여 좋은 글 보다 많이 投稿하여주시기 仰請하오며 福된 希望의 새해를 맞이 하시기 新願합니다.

李 應 峻

용 구 문 화 제 13 호

1987년 12월 25일 인쇄

1987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이 응 준

인쇄처 : 흥익문화인쇄사 전화 : 274-6155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킨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자조 · 자립 · 협동

祝 展
發



副理事長	李 炳 潤	理事	朴 浩 烈
理事	車 相 洙	理事	吳 金 學
理事	宋 在 權	理事	金 學 在
理事	朴 禹 赫	理事	鄭 在 珪
理事	金 興 圭	理事	崔 南 敬
理事	趙 命 吉	常務	朝 憲 朝



龍仁信用協同組合

理事長 金正根

龍仁郡 龍仁邑 金良場里

☎ 2-4790

